



주간 중국 창업

제 196 호 (2020. 9. 9)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2020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박람회: 상상을 초월한 과학기술의 성대한 잔치
(과기일보科技日报, 2020.9.7)
- ▶ 한국 학교 교육에도 쓰이고 있는 Zoom, 중국과 거리두기 방향 (봉황과기凤凰科技, 2020.9.2)
- ▶ 또 새로운 행동 개시! 인도 정부 118 개 중국 App 금지 선포 (환치우왕环球网, 2020.9.2)
- ▶ 베이도우와 5G 는 중국 무인 농기계를 운전하여 경작하고 수확 관리
(과기일보科技日报, 2020.9.7)

ISSUE 및 시장동향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험대에 오른 온라인 교육 — 창업방(创业邦) 제공
- ▶ 기업 디지털화 전환에 오피스용품 시장도 변혁 중 — 이방동리왕(亿邦动力网) 제공
- ▶ 파견, 아웃소싱과 신경제 하에 꿈틀대는 중국의 유연 고용 시장 — 이오왕(亿欧网)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63) AI 와 양자 컴퓨팅에 10 억 달러 지출하는 미국 — 지동서(智东西)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40)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일본이 대국에 머무를지 이류국으로 떨어질지, 앞으로 2년내에 결정난다’ 문명평론가에게 던지는 각오 (아사히신문 글로벌+, 2020.8.31)
- ▶ 분식 ‘JDI’가 상징하는 일본 하이테크산업 ‘제3의 패전’ (Foresight, 2020.8.31)
- ▶ 아베정권 7년8개월 사이 일본인은 타락했다 (Newsweek, 2020.8.31)
- ▶ 실패인가 성공인가, 약8년의 아베노믹스로 얻은 교훈 (동양경제온라인, 2020.9.2)
- ▶ 하마노리코 ‘바보노믹스가 망쳐버린 일본 경제문제의 틀을 넘어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아레아 닷컴, 2020.8.31)
- ▶ 충격... ! 아베노믹스 아래에서 일본인의 ‘개인소비’가 괴멸되었다 (현대비즈니스, 2020.9.2)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의료

-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통제 기간에 소독 제품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에 관한 통지 (2020.8.4)

주간 NEWS

1. 2020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박람회: 상상을 초월한 과학기술의 성대한 잔치

(과기일보科技日报, 2020.9.7)

9 월 4 일 2020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박람회(CIFTIS)가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5 일간의 박람회 기간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의 성대한 잔치가 펼쳐졌다.

‘스마트’ 서비스 로봇, ‘하드코어’ 동계 올림픽 기술,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 돋보인 이번 박람회는 통계에 따르면 148 개 국가와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고 10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 등록을 했고 190 회의 포럼과 상담회 행사가 집중 개최되고 381 개 항목의 전시회 성과가 찬란하게 선보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 1)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박람회장 풍경

9 월 5 일 과기일보(科技日报) 기자는 서비스 무역 박람회관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 서비스 로봇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가정, 물류, 건강, 상업, 환경 등 업무와 생활 방면에서 전방위로 활용되는 여러가지 기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들였다.

중국, 스위스,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 10 여개 국가와 관련 기업이 자신의 특색 성과를 전시했다.

한 대의 쓰레기 분류 로봇은 아주 민첩하게 지치지도 않고 한 통 쓰레기 안의 빵, 캔, 종이조각 등을 정확히 분류했다.

ABB 전시부스의 한 엔지니어는 이것은 자동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하여 일체화된 로봇이라며 화웨이 AI 칩 셋트로 구성되었고 화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용되며, 전체 쓰레기 식별과 분류 과정에서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사진 2)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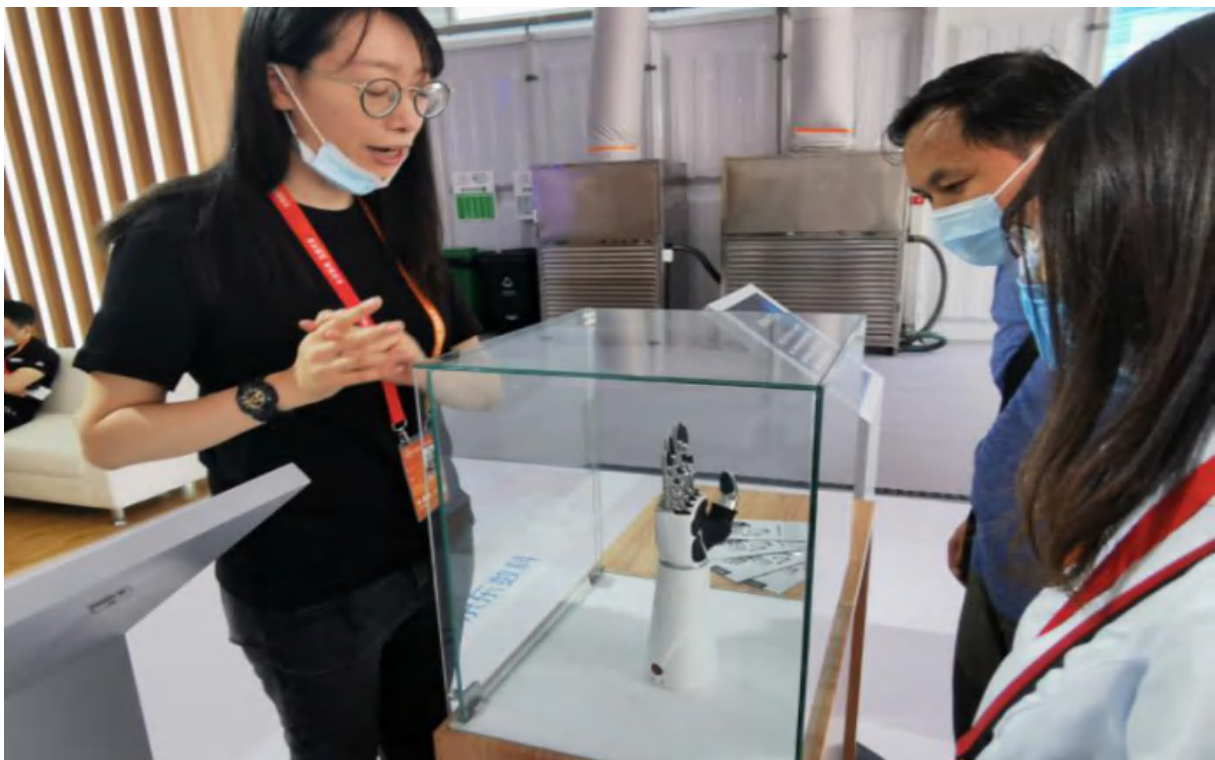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은색 금속 질감과 절묘한 관절이 있는 로봇 손이 지나는 사람을 멈추게 한다."이것은 가짜 팔을 사용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AI 생체 모방 손인데 내부에는 작은 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관절 생체 공학 구조, 자유로이 다각도로 조정하는 전략, 쾌속 전자 기기가 장착된 절묘한 결합/분리 기관과 유연한 접촉 재료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기의 전기 신호 유형과 속도, 생체를 모방하여 손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일상 생활에서 80%의 일상 동작을 완성합니다.

장애인의 보조 의수, 설치와 배치 보조, 스마트 공장, 물류 운반, 고위험 처리, 정밀 제조와 과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과학 기술 전시구역의 징둥(京东) 로봇 제품 부서의 제품 관리자 창디(常荻)가 이와 같이 소개했다.

‘블랙테크’가 동계올림픽을 지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빙설 스포츠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자인, 빙설의 운영 장면 등에서 점점 더 ‘블랙테크’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몇 명의 아이들이 티엔빙(天冰)부스를 지나다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기에 의해 천천히 방출되는 ‘눈송이’에 매료되었다. "스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여러 지역에 실내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고 고품질의 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내 제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티엔빙 조설 설비(싼허)유한공사(天冰造雪设备(三河)有限公司)의 시장 개척 담당자 천위매이(沈玉梅)가 이렇게 소개했다.



사진 4)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2022 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장애올림픽 전시존에 이르자 슬로프에서 스노 보드를 탄 청년이 하얀 ‘눈’ 위에서 멋있고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보면 ‘눈’은 진짜 눈이 아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일종의 인공 합성 재료이고, 최고의 마찰 계수를 제공하고 실제 스키 체험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실내 스키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운동 선수와 코치에게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동계 스포츠 특별 전시관에서는 상해 시누어 기업 발전 유한 공사(上海世诺企业发展有限公司)의 마케팅 총감 류취엔하이(刘泉海)가 이와 같이 소개했다.



사진 5)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대략 올해 말에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모든 장소의 모델링 시뮬레이션의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립 가오산(高山) 스키 센터, 국립 수영 센터, 우커송(五棵松) 스포츠 센터, 쇼우두(首都) 체육관 등 경기장은 모두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델링 설계되었고, 가상 디지털 방식으로 원래 체육 경기장을 1:1로 복원할 수 있어 경기장 운영 설계와 방송 계획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 대형 화면에서 가상 디지털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기술은 전통 문화에 힘을 실어 준다

기자는 '헤드폰'과 유사한 장치를 이마 가까이에 놓으니, 그 옆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즉시 집중도 99%, 공명도 80%, 정서 "평정함"이 표시되었으며, 동시에 뇌의 좌우 반사 영역의 활성화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대뇌의 내부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것은 뇌파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침강식 사념 상호 작용 기술입니다.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등의 기술에 기반하여 사람들의 집중도를 '고정'하여 화면을 제어하고 새로운 방식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엮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3D 인터랙티브 수단으로 진열되는 예술품은 참관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베이징징시커지(北京鲸世科技) 총경리 우위엔(吴源)이 말했다.

기자는 큰 스크린에 전시된 정적 상태의 세가지로 채색된 유색 도자기 낙타상을 보았는데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살아났고', 여러 도자기 사람들이 낙타 뒤에서 뛰어올랐다.



사진 6)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과학 기술 수단의 지원이 있어 전통 문화는 새로운 활력을 발산한다. 서비스 박람회는 과학과 문화가 물과 기름이 섞이는 듯한 융합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베이징 리시 문화 유물 복원 센터(北京乐石文物修复中心)는 문화 서비스 테마의 전시장에서 30 건의 문화 유물 복원 공예 프로세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재현했다. 그중 북경 방산 운거사 문화 유물 관리 사무소(北京房山云居寺文物管理处) 국가 일급 문화 유물 '청룡장(清龙藏)' 목판경 보호 복원 프로젝트, 쓰촨성 문화 유물 고고학 연구원의 2017 년 전국 10 대 고고학 발견 10 대 중 하나인 '장코우 명나라 말기 전장 유적지 유물 보호 복원과 공예 연구 합작 프로젝트' 등 관련 공예 복원 기술이 청중 앞에서 생생하게 전시되었다.

2. 한국 학교 교육에도 쓰이고 있는 Zoom, 중국과 거리두기 방향

(봉황과기凤凰科技, 2020.9.2)



사진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유럽과 미국의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화상 회의 앱 개발사 Zoom 이 크게 혜택을 보았다. 새로 발표한 재무보고 후 Zoom 은 오늘 주가가 40.78% 상승했고 시장 가치는 1291 억 달러가 되었다.

Zoom 의 시장 가치는 이미 전통적 과학기술 기업 IBM 또는 컴퓨터 처리기 제조사 AMD 를 넘어섰고, 가상현실 기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업 VMware 의 2 배 이상이 되었다.

Zoom 은 2019 년 상반기에 상장했고 당시 최초 발행범위는 28~32 달러였으며, Zoom 의 현재 주가는 457.69 달러로 가장 낮은 발행가와 비교할 때 16 배 이상이 올랐다.

위엔정(袁征)의 자산은 270 억 달러 이상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Zoom 은 2021 재무년도 2 분기 영업수익이 6.635 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46 억 달러보다 355% 증가했다.

Zoom 은 2021 년 재무년도 2 분기 순이익이 1.86 억 달러이며 작년 같은 기간 554 만 달러보다 3253% 증가했다.

Zoom 의 실적은 분석가의 보편적인 예측을 뛰어넘었다. 동시에 Zoom 은 한 해 실적 지침을 상향 조정했다.

Zoom 주식의 대폭 상승은 중화계 CEO 위엔정(袁征)의 자산도 하룻밤만에 대폭 상승하게 했다. 1291 억 달러 시장가치로 계산하더라도 위엔정(袁征)의 현재 자산은 270 억 달러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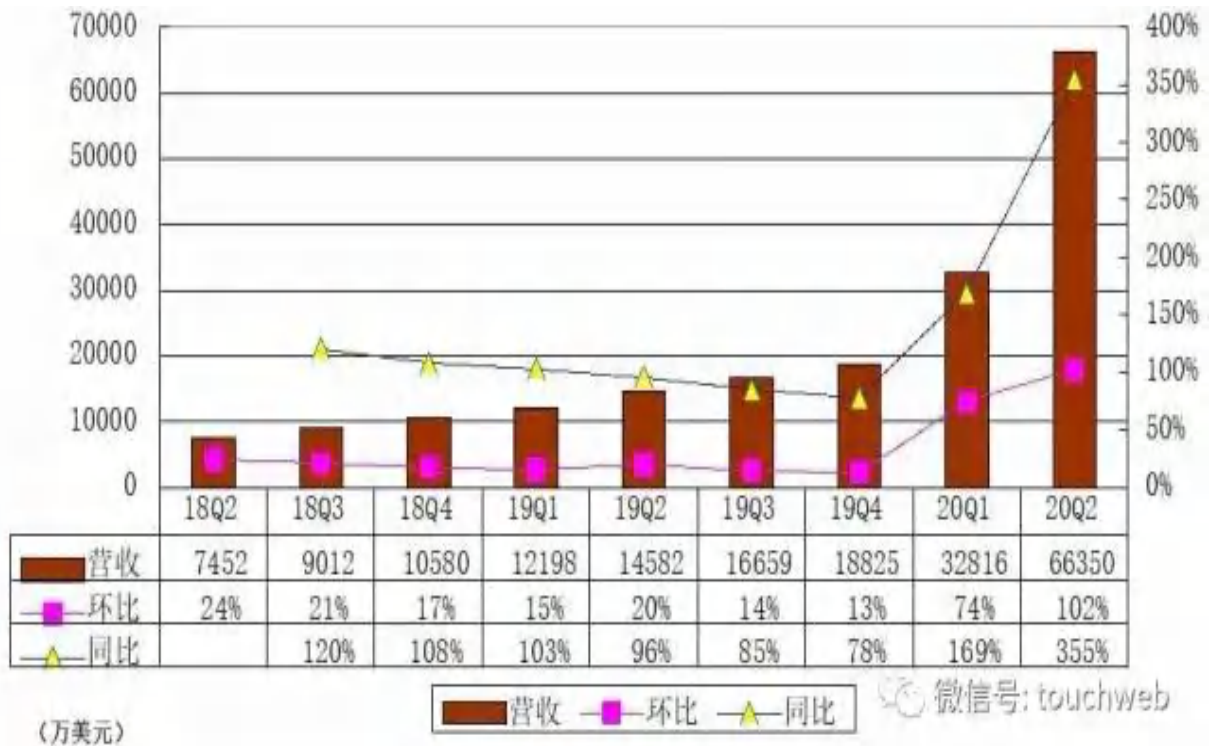


표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Zoom 의 2018Q2 부터 2020Q2 까지 실적, 자주색-영업수익, 분홍색-전분기 대비, 노란색-전년도 동기간 대비



표 2)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Zoom 의 2018Q2 부터 2020Q2 까지 실적, 연두색-순이익, 분홍색-전년도 동기간 대비, 노란색-전분기 대비

일찍이 9 차례 비자 신청하여 8 차례 거부된 이력



사진 2)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위엔정(袁征)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위엔정(袁征)은 산둥성 타이안(泰安)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독서와 책 사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1996 년 인터넷에서 책을 팔고 싶어했는데 중국인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내 금전 유통은 모두 우편 전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위엔정(袁征)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간편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들의 인터넷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했다.

위엔정(袁征)은 미국 비자를 8 차례나 거부당했고 9 번째에야 비자 신청이 통과되어 1997 년 8 월 가까스로 미국에 와서 WebEx 에서 일을 시작했다.

미국에 온 초기에 언어장애로 위엔정(袁征)은 그저 회사에서 코드 작성 업무를 2002 년까지 했다. 위엔정(袁征)에게 미국에서의 운명이 크게 바뀐 사건은 씨스코(Cisco)가 WebEx 를 32 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Zoom 은 자신의 사이트에서 위엔정(袁征)을 말할 때 '1997 년부터 2011 년까지 WebEx 의 창립 엔지니어 겸 엔지니어링 부총재일 때 위엔정은 WebEx 제품의 핵심과 영혼을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엔지니어에서 부총재까지 위엔정은 WebEx 에서 14 년을 일했다. 2007 년 씨스코는 32 억 달러에 WebEx 를 인수했다.

훗날 위엔정은 씨스코 엔지니어링 부총재로 진급했다. 씨스코 산하의 인터넷 회의 공급사 WebEx 는 초기의 10 명 엔지니어에서 800 여 명으로 발전했고 수입 0 에서 8 억여 달러로 높아졌다.

그러나 위엔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1 년 창업을 결심한다. 40 여 명의 엔지니어는 그를 따라 이직해 Zoom 을 창립했다.

위엔정은 당시 씨스코를 떠나 Zoom 을 만든 것에는 주로 다음의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론상으로 십 수년의 시간과 심혈을 들여 WebEx 에서 일했고 고객은 비교적 만족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2011 년 매번 고객을 방문할 때마다 단 한 명의 고객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엔정은 당시의 씨스코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팀을 조직해야 했다고 했다.

“한 달 후 Zoom 이 성립됐다. 구글 친구, 이자청(李嘉诚), 홍빈 캐피탈(红杉资本) 등의 자본 진입에 따라 Zoom 도 천천히 커지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Zoom 의 최초의 형식도 위엔정의 지난 80 년대의 경력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던 그는 여자친구와 원거리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거리 화상 소프트웨어라는 발상이 떠올랐다.

Zoom 을 성립한 초기 인터넷 회의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은 치열했다. 전에 있던 WebEx 등 거두가 있었고 후에는 거의 동시에 애플 Facetime 과 구글 Hangout 이 출현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그런데도 Zoom 은 여전히 '다크호스'가 되어 두각을 나타냈고, 마침내 2019 년 4 월 상장했다. 발행가로 따지면 시가 92.4 억 달러였다. 이어서 첫날 개장에서 주가가 85% 상승했다.

Zoom 성공의 한 원인에는 '중국 혈통'이 있다. 연구 개발을 중국에서 했고 연구 개발 인력의 비용이 미국보다 많이 싸서 이 상품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Redpoint Ventures 의 Tomasz Tunguz 는 일찍이 블로그에서 Zoom 의 이윤 창출 능력의 관건이 되는 요소는 노동력 매매 차익에서 온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직무를 인력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옮겼고, 이것이 과학 기술 기업 중 일종의 날로 성장하는 추세를 만들었다.

Zoom 의 주주모집설명서에도 중국의 여러 연구 개발 센터에 500 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직원 총수에서 중국 직원이 30%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 국적이 아닌 직원이 직원 전체에서 70% 비율을 차지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점차 멀어진다



사진 4)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2020 년이 되자 Zoom 에게 더욱 시운이 도래했다.



사진 5)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코로나 19 전염병이 전세계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며 대다수 산업 모두 타격을 입었으나 원거리 사무 영역은 도리어 붐을 맞았다. 특히 전문적으로 원거리 회의라는 세분화된 영역의 Zoom 은 더욱 잘 번영하게 되었다.

Zoom 의 일일 활성사용자 수는 2019 년 12 월의 1000 만 명에서 2 억 명이 되었고, 유럽 미국 사용자의 회의, 수업, 교육 트레이닝, 연애, 친구 방문, 의사 진료, 심지어 혼례식과 장례식도 모두 Zoom 을 사용했다.

2020 년 초 힐하우스캐피탈(高瓴资本)은 웨이라이 자동차(蔚来汽车)의 지분을 전부 처분하고 Zoom 에 재투자하여 큰 돈을 벌었다. Zoom 의 현재 주가는 이미 발행가보다 14 배 폭등했다.

물론 인기를 얻게 된 Zoom 은 도리어 여러 번거로운 일을 겪었다. 예를 들면 사적 정보 보호 문제로 Zoom 은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전에 Zoom 이 당면한 문제는 종단간 비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화상 회의를 어지럽힐 수 있으며,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악성 행위는 "Zoom-bombing(Zoom 폭탄)"이라 불리워졌다.



사진 6)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Zoom 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Facebook 과 관련된 것으로 Zoom 은 심지어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사적 정보 정책에 따라 Facebook 에게 분석 데이터를 발송했다.

만명이 넘는 개인 Zoom 영상이 공개 인터넷 페이지에 올라왔고 누구든 모두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의 우주 회사 SpaceX 는 비망록을 통해 직원들에게 Zoom 사용을 금지하는 통지를 선포했고 이 앱에 '심각한 개인 정보 보안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량의 보안과 사적 정보 고소 문제가 발생하자 위엔정은 무기력함을 느꼈고 사과를 했다. 이러한 문제가 Facebook 을 통해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 코드를 이미 삭제했다고 했다.

“우리가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 일련의 부정적 소식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엔정의 말이다.



사진 7)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위엔정은 Zoom 의 신상품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관계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Zoom도 영향을 받아 Zoom은 중문 공식사이트에서 8월 23일부터 계정 주소가 중국 대륙인 고객에게 새로운 Zoom 서비스 또는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직접 세일즈 서비스 중단 후 Zoom은 단지 합작 파트너 세일즈 방식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했다.

일부 소식에서 Zoom은 점차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현지 직원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했으며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의 기술 센터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Zoom은 탈 중국화로 가고 있고,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또 새로운 행동 개시! 인도 정부 118개 중국 App 금지 선포

(환치우왕环球网, 2020.9.2)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인도의 새로운 조치가 또 나왔다. AFP는 방금 인도 정부가 118개 중국 App을 사용 금지하기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인도 ANI 뉴스 네트워크의 소식에 따르면 인도 전자 정보 기술부 (MEIT)는 9 월 2 일 중국 118 개 앱이 "인도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인도 방위,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모바일 게임 PUBG MOBILE LITE, 기업 위챗 WeChat Work, WeChat reading, 명함 인식 소프트웨어 CamCard, 바이두(百度),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 Cut Cut,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VooV, Sina 뉴스 (新浪新闻), 모바일 타오바오(手机淘宝), Youku (优酷)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출처: 바이자하오(百家号 新智元)

인도 <금융快报(金融快报)>는 6 월 29 일까지 인도 정부가 중국 App59 개를 금지했으며, 1 개월 후 재차 47 개 중국 App 사용을 금지하여 현재까지 인도 정부가 이미 금지한 중국 App 은 224 개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인도 정부가 이 최신 조치를 발표하기 전, 중국 서부 군지역의 대변인 장수이리(张水利) 대령이 8 월 31 일 중국-인도 국경 상황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8 월 31 일 인도 군대가 양측 간의 초기 다단계 회담을 방해했다며 회의에서 도달한 합의는 다시 불법적으로 판공 호수 남쪽 기슭과 르친산(热钦山) 입구 근처의 선을 넘어 국경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긴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측의 움직임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인도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연행이 모순되며 신의를 저버렸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은 인도 측에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점유하는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고, 최전선 병력을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약속을 준엄하게 준수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을 엄숙하게 요청한다. 중국군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군사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국경 지역과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올해 6 월 중국-인도 국경 충돌 이후, 인도는 부단히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 6 월 인도 정부는 또한 TikTok, WeChat, Weibo 를 포함한 59 개의 중국 앱이 '보안' 고려 사항에서 금지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앱의 활동이 인도의 주권, 국방,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믿었다. 그러나 소위 '보안' 이유를 사용한 후 이 문제가 큰 주목을 불러 일으킨 후, 일부 인도 언론은 이러한 움직임이 조성한 역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도快报(印度快报)>는 이것이 "이러한 플랫폼에서 창작과 일을 하는 인도인"이 수입의 근원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뉴델리 TV 방송국도 이 금지령이 TikTok 플랫폼 상의 일부 유명인 계정과 정부 기관 계정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赵立坚)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중국 기업이 국제 규칙과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대외 협력을 수행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인도 정부는 시장 원칙에

따라 중국 기업을 포함한 영내의 국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중국과 인도의 협력은 실무 영역에서 상호 이익과 상생이며, 이런 종류의 합작 배치가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실제로 인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 베이도우와 5G 는 중국 무인 농기계를 운전하여 경작하고 수확 관리

(과기일보科技日报, 2020.9.7)

"곡창이 짝 찢으니 와서 곡식을 가져가라." 5G 신호를 통해 무인 수확기는 파트너 무인 곡물 트럭에 메시지를 보낸다. "받았다." 밭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곡물 운반 트럭은 즉시 수확 트럭 옆으로 운전해 갔다. 수확기는 곡물 하역 통을 뺀어 펼치고 팔팔팔..... 곡물을 곡물 운반 트럭에 내렸다. 하역 과정은 불과 수십 초 만에 완료되었다.

최근 화남 농업 대학(华南农业大学)의 쑹청(增城) 교육 연구 기지에서 중국 엔지니어 학원 학사, 화남 농업 대학 교수, 광동 농촌 과학 기술 특파원 루어씨원(罗锡文)팀이 무인 벼 농장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우리의 무인 쌀농장은 이미 경작, 재배, 관리, 수확의 전과정을 완전히 기계화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전국 각지로 확대 보급될 것입니다." 루어씨원(罗锡文)이 말했다.



사진 1)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전과정 무인 기계 작업을 실현

화남 농업 대학(华南农业大学) 무인 벼농사에서 이미 첫번째 벼를 생산했으며 이번 쌀 경작, 파종, 관리, 수확은 모두 무인 농기계에 의해 완성되었고 중국 내에서 최초다.

5 월 3 일 무인 회전 경운기를 사용하여 토지 경작을 완료하였고, 5 월 9 일에는 무인 운전 벼 파종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직접 벼 파종을 하고, 그 후 무인 운행 고지대 분무기와 무인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퇴비 주기와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8 월 30 일 무인 수확기와 곡물 운반 차량이 협력하여 수확 작업을 완료했다. 수확 현장에서 전문가 팀은 5 곳에서 샘플을 취해 수확량을 측정했는데, 무인 농장의

이론상 무(亩 편집자 주: 중국의 토지 단위로 1 무는 약 667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당 수확량은 558.6kg 이었다.

“무인 농장은 작업 인력을 빈번하고 고된 운전 작업에서 해방시키고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루어씨원(罗锡文)은 무인 농장이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는 하나의 경로라고 소개하면서 경작, 파종, 관리, 수확, 생산을 포함하여 생산 과정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며 논에서 창고까지의 이송 작업은 완전 자동, 자동 장애물 회피, 비정상 상태 주차시 안전 보장, 작물 생산 공정에 대한 실시간 전체 모니터링, 스마트 의사 결정과 정밀 작업이 모두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5 대 특징을 지닌다.

무인 농장에서 회전식 경운기, 트랙터 등의 기계는 설계된 절차에 따라 스스로 격납고에서 현장 작업으로 이동한 다음 논에서 일하고 다시 격납고로 돌아가 쉽게 농업 활동을 완성하고 전과정 무인화를 실현한다.

2004 년부터 루어씨원(罗锡文) 팀은 농업 기계 자율 운전과 자동 작업을 연구하여 10 가지 핵심 기술을 정복하고 무인 회전식 경작기, 파종기, 이앙기, 고지대 간격이 넓은 분무기, 수확기를 연속적으로 개발했다. 경작, 파종, 밭 관리, 수확의 전체 과정은 무인 기계화되었다.

대규모 확장에는 양대 조건이 필요

무인 농장의 실현은 "생명 공학, 스마트 농업 기계, 정보 기술"의 세 가지 주요 기술에 의존합니다.” 루어씨원(罗锡文)은 특별히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 기계와 정보 기술 측면에서 베이도우(北斗) 네비게이션 위치 확인 시스템과 5G 통신 시스템에 주로 의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신들은 방금 제 3 차 곡물 하역시 곡물 트랙의 주차 위치가 약간 앞섰고 수확기에 정보 경고가 떠오르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베이도우(北斗) 네비게이션 위치 탐색 시스템과 5G 통신 시스템이 협동 작업하여 이로부터 정확한 위치 탐색과 여러 대 농기계의 정확한 작업 결과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는 베이도우 네비게이션 위치 탐색 시스템이 주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고 5G 통신 시스템은 대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정보 전송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현재 무인 농기계의 직선 보행 정확도는 2.5cm 에 이른다.

업계 전문가들은 루어씨원(罗锡文) 팀이 개발한 베이도우 항법 기반 농업 기계 자동 항법 운영 결과가 총체적으로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고 여긴다. 이 중 전답 자동 항법 운영 및 주종 항법 기술은 국제 최고 수준에 있으며 조기에 땅과 전답의 경작 정리, 파종, 식재, 보호, 수확 등의 과정에서 정확한 작업 요구를 만족시키며, 해외 기술의 독점을 깨고 중국의 현대 농업 스마트 생산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무인 농장이 언제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루어씨원(罗锡文)은 두 가지 주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인프라가 양호해야 하고, 농경지의 수로, 도로망, 전력망, 통신 신호 등이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대지 면적이 커야 하고 작고 흩어져있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로 실험과 시연을 위주로 한 다음 점차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루어씨원(罗锡文) 팀은 상하이, 산둥 등 기타 지역과 초보적인 합작 의향을 확인했으며 10,000 무(亩) 이상의 식재 면적을 실험할 계획이다. 그는 "9 월에 우리는 포산시(佛山市)에서 땅콩 무인 농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벼 무인 농장이 첫번째 실험을 마친 후 11 월에 이 곳에 유채 무인 농장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ISSUE 및 시장동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험대에 오른 온라인 교육 — 창업방(创业邦) 제공



사진 1) 출처: 창업방(创业邦)

듣건대, 매 학부형 온라인 그룹안에서 학부형은 필히 ‘평온함이 진짜’ 또는 ‘군자는 옥과 같다’는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닉네임 배후에는 종종 감추려할수록 드러나는 심리 여정이 있다——이 닉네임을 확정하기 전 그들 대부분은 무수히 고함치는 과정을 거쳤고 무수히 자신의 자식이 친자식인지를 의심했다. 왜 이리 멍청한 것인지, 자신의 감정을 왜 이리 쉽게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이다. 이렇게 애타게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세월을 충분히 겪은 후 그들은 점차 다정하지 않은 위협을 선택하게 된다. 학부형 그룹에 아직 있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에 대한 최후의 집념이 한 가닥 희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식 가정과 중국식 가정 교육의 축소판이다. 매 한 세대 모두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매 세대 모두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스트레스가 전해지며 아이들의 과외 시간, 각종 보충 학습이 만연하게 되었다. 신흥 중산층일수록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각종 학교 부근의 오프라인 교육 산업체인이 형성되었다.

거의 매 일 년마다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소리가 나온다. 베이징은 더욱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오프라인 보충학습반을 제한한다. 심지어 보습 교실이 수업을 열기도 전에 학부형들이 특정 위챗 그룹에서 구체적인 수업 위치를 통지받은 적도 있다. 심지어 어떤 학부형은 이러한 위챗 그룹에 잠입해 들어가 신고하기도 한다. 교육은 거의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배척하고, 서로 포위해 막아버리는 힘 겨루기가 돼 버렸다.

모바일 인터넷의 대세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거대한 발전과 보급을 맞았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학, 초중고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었고, 2.65 억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했다.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0 년 3 월까지 중국내 온라인 교육 사용자 수 규모는 4.23 억 명에 달한다.



표 1) 출처: 창업방(创业邦). 온라인 교육 침투율

최근 VIPKID 총재 겸 연합창립자 장위예자(张月佳)는 대외에 선포하길, 회사는 이미 연속 6 개월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소식으로 업계 뉴미디어는 연이어 VIPKID 성공의 핵심 요소를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VIPKID 가 연속으로 흑자를 거둔 시간과 전염병이 지속한 시간이 서로 교묘하게 일치하여, 흑자의 핵심이 전염병이 변화를 제공하고 사용자를 확보하기 더 쉽게 만들고, 고객을 모을 비용도 갑작스레 낮춘 것에 있다고 본다.



사진 2) 출처: VIPKID 공식 홈페이지. 100%북미 원어민 교사 1:1 온라인 수업으로 크게 성공한 유아·청소년 영어학습 VIPKID

01

거대한 학업 연령 인구 기준량은 보습 교육을 거대한 블루오션으로 만든다

중학교 준비반에서 해외 유학에 필요한 각종 교육 기관까지 전국에 걸쳐, 거의 모든 학생을 포괄하는 교육 생애가 있다. 초창기에는 끊임없이 교육 기관이 문을 닫고 떠나갔고, 아무도 뒷 수습을 하러 오지 않았고, 신뢰 문제가 수많은 교육 기관을 따라붙어 괴롭혔다. 신동팡(新东方), 하오웨이라이(好未来) 등 전국 체인점 교육 브랜드의 흥기는 점차 이러한 현상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신동팡(新东方)은 원래 베이징에 위치한 작은 유학 교육기관이었다. 3인 지도체제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조정을 거쳐 회사 규모를 전국 각지에 복제하고, 신동팡을 중국 최대의 유학교육기관으로 만들어 수많은 유학 수요와 영어 학습 수요를 가진 학생에게 강력한 지원을 했다.

현재 중국은 1.92 억 명의 초중학생이 있으며 2022년에는 완만히 증가하여 1.94 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거대한 인구 기준량과 학령 인구로 인해 교육은 거대한 상상 공간의 영역이 되었다. 국신증권(国信证券)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교육시장 규모는 2013년의 36.6 억 위안 인민폐에서 2018년에는 143.2 억 위안 인민폐로 증가했으며 2018~2023년의 연도 복합성장률은 37.2%까지 높아지고, 2023년 온라인 교육 산업 수입 규모는 696.3 억 위안 인민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표 2) 출처: 창업방(创业邦). 온라인 교육시장 규모

하오웨이라이(好未来)가 타겟으로 한 이 시장은 초중학생을 위해 전문적으로 전방위의 과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7년의 하오웨이라이(好未来)는 toC의 오프라인 소그룹 사업 슈에얼쓰(学而思)를 줄곧 기초 핵심 사업으로 해왔다. 최근 5년 슈에얼쓰(学而思)의 영업수익은 부단히 높아져 초중학생의 과외 교육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02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의 바통을 이어받다

코로나 이전 오프라인 교육은 학부형의 최우선 선택지였다. 2019 년 통계에 따르면, 매 학부형이 아이에게 시키는 학원 수업은 2.2 개였다. 베이징 하이드엔 황창(海淀黄庄)은 과외 교육 기관의 산실이다. 이렇게 협소한 곳에 신동팡(新东方), 슈에얼쓰(学而思), 리쓰천(立思辰), 까오쓰(高思), 지에룽(杰睿), 푸쑤(朴新) 등 십여 개 브랜드 교육 체인점이 즐비했고 기타 각종 작은 교육 보습 기관이 있었다. 듣기로 하이드엔 황창 부근(海淀黄庄)의 과외 수업은 1 시간에 약 400 위안이고, 많은 학부형이 아이들에게 과외 수업비로 연간 10 만 위안 정도를 쓴다고 했다.

중산층 학부형의 열정과 학교 외 교육기관이 상호 부응하여 과외 보충 수업 열풍이 점차 왕성해졌고 자신에게 불의의 재난을 불러오기도 했다. 2018 년부터 과외 학습을 허용하지 말자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매년마다 이러한 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과외 교육 산업의 혼란스러움에 관련 부서가 주목하게 되었고 산업 조정이 시작되었다. 2018 년 12 월 13 일 교육부 뉴스발표회에서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부순시원(北京市教委副巡视员) 평홍룽(冯洪荣)은 베이징시가 이미 12681 개 사 과외 교육기관을 조사했으며 이중 문제가 있는 7557 개 사를 추려내어, 이미 7079 개 사를 조정했고 조정 진도는 93.67%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20 년 코로나 19 의 폭발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과 지역 위치의 장점에 의존하던 오프라인 교육산업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초중학교 오프라인 수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과외 교육기관의 사업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공간의 우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폭발기에 진입했다.

하오웨이라이(好未来)를 예로 들면 상반기에 오프라인 교육 훈련을 중지하고 온라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온라인에서 같은 효과를 거두고 영업수익이 크게 상승했다. 올해 7 월 30 일 하오웨이라이(好未来)는 최신 분기 재무보고를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8165.10 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17.89% 증가했고, 영업수익은 9.11 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58% 증가했다. 회사 주가는 년초 49 달러에서 78 달러로 폭등하여 59.2%나 크게 올랐다. 이외 온라인 교육기관 견웨이슈에(跟谁学)는 시장가치가 년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00%나 상승했다.

03

코로나는 학습에 대한 관념을 재조망했고 다크호스가 기존 권역을 타파했다

인터넷은 공간 제약이 없고 교육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어 대중 교육기관이 이 트랙에 주목하게 했다. 신동팡(新东方), 하오웨이라이(好未来) 등 거대 기업도 연이어 온라인 교육을 배치했고 온라인 교육 영역에서의 경쟁을 가열시켰다.

2019 년 여름방학기간 많은 온라인 교육 회사는 학생 모집 전쟁을 치렀다. 이 중 3 개 사는 K12 헤드급 회사로 슈에얼쓰(学而思), 주어예방(作业帮), 위엔푸다오(猿辅导)가 각각 10 억, 4 억, 5 억을 투입했다. 주어예방(作业帮) CEO 호지엔빈(侯建彬)은 2019 년 10 월 전 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름방학 기간 198 만의 총 서비스 인원 중 60%이상의 사용자가 자체 트래픽에서 왔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40%의 사용자는 루트에 홍보를 진행하여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만약 온라인 교육에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몇 백 위안에서 천 위안이 넘는다. 업계 평균 전환율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고객 확보 비용은 대략 1000~4000 위안 사이이다. 고객 모집 비용은 아마도 실제 영업 수입보다 높을 것이고 많은 온라인 교육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도 큰 소리로 고객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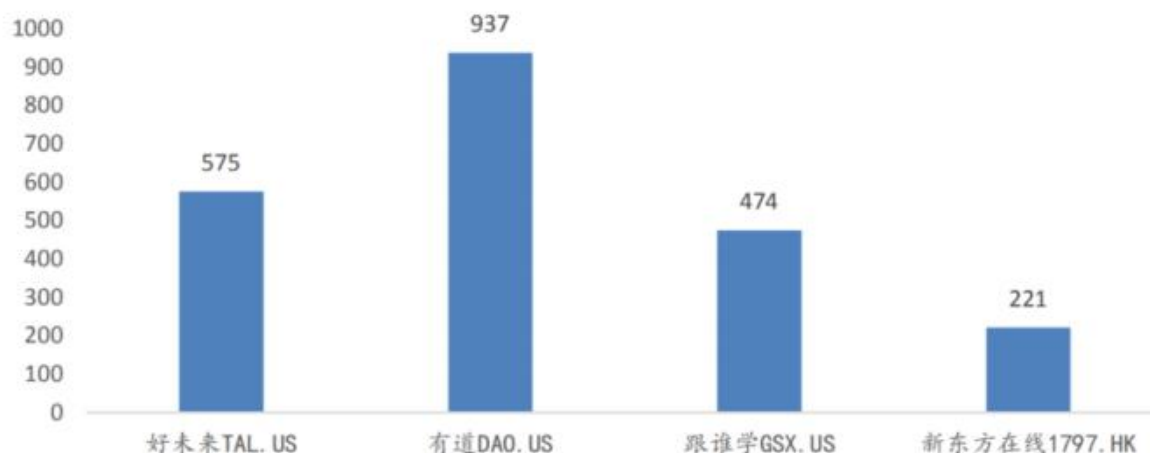


표 3) 출처: 창업방(创业邦). 온라인 교육업에서 단일 고객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

코로나 19 전염병 기간 교육 방식이 바뀌었고 온라인이 교육의 유일한 입구가 되었다. 온라인 교육 영역의 기업으로 말하자면 공급과 수요 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전에는 교육회사가 고생스럽게 고객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학생 학부형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고객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크게 감소하였고 고객을 확보하기도 더 쉬워졌다. 이것도 VIPKID가 연속 흑자를 보게 된 주요 원인일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심지어 공급 단말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휘화쓰웨이(火花思维)의 경우 영상 애니메이션, 지식 클릭 강연, 도구 실제 사용과 결합한 수학 사유 과정을 개설했고, 지식과 흥취를 결합했고, 온라인 교육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 수혜를 본 기업이 되어, 반년만에 2차례의 용자를 완성했다.

日期	融资轮次	估值	金额	比例	投资方
2020-08-04	E轮及以后	-	1.5亿美元	-	金沙江创投 KKR IDG资本 龙湖资本 纪源资本 红杉资本
2020-04-20	D+轮	-	3000万美元	-	快手

표 4) 출처: 창업방(创业邦). 휘화쓰웨이(火花思维)용자 기록. 왼쪽부터 일자, 용자 차수, 금액, 투자사 이름

장기적이고 고빈도의 접촉을 통해 이 반년의 시간동안 학생과 학부형은 온라인 교육에 이미 사용 습관을 형성했다. 최근 휘화쓰웨이(火花思维)는 소개전환율이 82%이고 학비 지속 납부율이 80%라고 했다. 사용자 관념이 바뀌고 전염병 하의 온라인 교육 산업은 이미 과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듯하다. 업계의 다크호스는 지금 시도해 보길 열망하고 있다.

04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교육의 관건이 되는 시기

인터넷은 정보 흐름의 채널로 존재해왔고 정보는 한 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흐른다. 과거에 교육 대다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가르쳐주는 형세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 자원의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온라인 교육은 더 높은 효과로 학생과 강사가 함께 연결되게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이론상 아주 좋은 수익 모델인데, 왜냐하면 우수한 교사 자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그 비용 증가는 오히려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염병의 폭발은 전 국민이 온라인 교육에 주목하도록 유도했고 의외인 사건 하나는 한 차례 전국 범위의 온라인 교육 습관 배양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 학습 배양은 현재 온라인 교육 산업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을 아직 바꿀 수 없다.

동시에 전염병 기간의 무료 수업은 온라인 교육 기관의 단점 노출을 가속화하여, 정식 유료 수업으로의 전환율이 비교적 낮다. 각 기관이 무료로 증정한 교육과정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지도 교사의 같은 진도의 주중 수업이 없고, 단지 신동팡(新东方)만이 온라인에서 별도로 주말 수업 클래스를 증정하였다. 지도 교사의 배치는 심각하게 부족하고 일부 서비스와 교과 과정 수준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신동팡(新东方)은 온라인에서 현재 정가 전환율이 최고 1.2%이며 대부분 여름 방학기간 24 만 명에게 기증했으나 마케팅 비용은 거의 4.5 억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한다.

培训机构	流量 (万人次)	免费课形式	免费课转正价班转化率
学而思网校	2000	周中课	1.00%
新东方在线	2000	周中+周末	1.20%
猿辅导	2000	周中课	1.10%
跟谁学	1500	周中课	N/A
作业帮	1500	周中课	0.80%

표 5) 출처: 창업방(创业邦). 각 업체의 무료 수업 상황. 왼쪽부터 교육기관명, 트래픽수(단위: 만 명), 무료수업 형식, 무료수업의 정식 수업반으로의 전환율

8 월 28 일부터 초중학교가 하나 둘 개학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 기관도 금지령에서 해방되었고 속속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학부형의 동반을 필요로 하나 오프라인 교육 기관은 학부형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부가 권익을 갖고 있다. 다시금 오래된 적수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 온라인 교육 산업의 굴기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산업에 수익의 임계점을 맞이한 것인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며 전체 산업은 아직 아주 먼 길을 더 걸어야 한다.

2. 기업 디지털화 전환에 오피스용품 시장도 변혁 중 — 이방동리왕(亿邦动力网) 제공

2014 년 9 월 중앙국가기관정부 구매센터가 정부 구매 온라인 쇼핑몰 건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화가 정부 구매를 더욱 개선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2019 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공자원 교역플랫폼의 융합 공유의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며, 중앙 기업의 그룹 온라인 구매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내 큰 오피스시장 규모는 2020 년에 2.26 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평균 성장률은 9%로 2022 년 시장 규모는 2.7 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로 4 대 부류로 나뉜다:

지신(齐心), 드리(得力), 천광커리푸 (晨光科力普) 등 문구브랜드상, OfficeMate(欧菲斯) 사무용품 파트너(欧菲斯办公伙伴), 링시엔웨이라이(领先未来) 등 중개 판매상 플랫폼, 징둥, 수닝, 티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하이얼(海尔), 리엔상(联想) 등 사무설비상이 바로 그 4 대 분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트래픽과 사용자 우세를 지니고 있으며, 문구 브랜드상과 사무설비상이 공급원과 브랜드 우세를 지녔으며, 최신 재무 보고에 따르면 지신(齐心)과 천광커리푸 (晨光科力普)의 연간 영업수입은 각각 45.5 억 위안과 36.6 억 위안이었다. 그렇다면 중개판매형 플랫폼 미래의 생존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도매시장, 전통 대리점, 슈퍼마켓 등의 비즈니스를 거치며 27 년간 오피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한 후, 문구류를 판매하는 유통 업체에서 어느 정도 사무실 수직 분야의 일류 기업인 OfficeMate 오피스메이트(欧菲斯)로 변신했다. 기존의 사무 구매 중개 판매형 플랫폼에서 탈피한 혁신적인 방법이다.



사진 1) 출처: 이방동리왕(亿邦动力网)

기자는 OfficeMate(欧菲斯)그룹 총경리 허즈(何志)에게 이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인터뷰를 했다.

역할 변화

1993 년 충칭(重庆)에서 설립된 OfficeMate 오피스메이트(欧菲斯)는 사용자의 원 스톱 요구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2001 년 OfficeMate 오피스메이트(欧菲斯)는 미국 STAPLES, 오피스디포 OfficeDepot 등 글로벌 일류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예측하여 전국형 기업으로 통합하여 중국내 사무 업계 최초의 서비스 상표 OfficeMate 를 등록했다.

"이 상표는 처음에는 제품 상표가 아니라 서비스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허즈(何志)는 이 시기부터 오피스메이트의 포지셔닝이 전통적인 중개 판매에서 To B 사용자 지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체인점 오픈 및 직접 방문 판매를 통해 O2O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혁신적인 현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홍보하여 산업 핵심 자원의 포괄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생태 체인을 생성한다.

허즈(何志)는 오피스메이트의 장점은 제품 사고에서 사용자 사고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공장을 대리하는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원 스톱 수요에서 시작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관리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특히 2014 년 이후 사무용품은 전자 상거래로 구매하는 것이 주요 트렌드가 되었으며, 오피스메이트는 전자 상거래 혁신에 앞장서고 정보화를 통해 전체 거래의 방식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그는 15 년 만에 '인터넷 + 사무용품 산업이 기업 서비스 진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늘날 오피스메이트는 30 개 대범주, 169 개 중간 범주, 1314 개 하위 범주 및 63 만 SKU 를 포괄하는 원 스톱 오피스 솔루션 제공 업체로 발전했다.



사진 2) 출처: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중국의 오피스메이트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오피스용품 전문매장 STAPLES

전자 상거래, 빅 데이터,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면 사무용품 구매의 교역 모델도 바뀔 것이다. 허즈(何志)는 대형 사무실 산업의 참여자가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가치를 창출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번의 개편은 효율성이 낮고 정보화 정도가 낮은 중개판매사를 확실히 도태되게 할 것입니다."

최후 백미터의 장점을 크게 만든다

이방싱크탱크(亿邦智库)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구매 사용자 중 정부, 중앙 기업, 지방 대형 기업이 전체 구매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각 플랫폼 발전의 핵심 사용자다. 이러한 사용자 구매는 일반적으로 공급 업체 제출, 입찰, 계약 성과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친다.

사무용품 구매 플랫폼은 공급 업체 선별 준비, 시스템 연결, 구매 프로젝트 대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팀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중시는 플랫폼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사진 3) 출처: 이방동리왕(亿邦动力网)

Deli(得力), 천광(晨光), 치신(齐心)은 2015 년부터 전 품종의 사무용품 직접 판매, 사무용품 배송을 시작했다. 자체 브랜드는 전체 사무용품 배송에서 점유율이 5 % 미만이다. 즉, 95 %가 공급망을 통합한 데서 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한 후 교부 단계에서 현지 공급망의 지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피스메이트의 자체 교부 비율은 앞서 언급한 회사보다 훨씬 높으며, 현지화된 서비스 기능과 판매 후 서비스 기능이 오피스메이트의 장점 중 하나다.

허즈(何志)는 정부, 중앙 기업과 전국에 걸친 대형 기업 등의 헤드급 고객은 오피스메이트와 치신(齐心)의 점유율이 막상막하지만, 오피스메이트의 중소형 고객의 수량은 치신(齐心), Deli(得力)를 능가한다고 소개했다 “왜냐하면 오피스메이트는 매 도시에 모두 이십여 년의 직접 판매, 배송 경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닝, 징둥 등 종합 전자 상거래 회사와의 비교에서 허즈(何志)는 전자 상거래가 브랜드 인지도에서 더 우세를 차지하고, 강력한 C-end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며, 큰 고객의 입찰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오피스메이트보다 강력하지만 징둥과 수닝은 여전히 B2C 공급망 교부 모델을 사용하여, 오피스메이트가 취하는 B2B 교부방식 체험이 더 좋다고 했다——물품을 회사의 각 부서에 배송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설비를 설치 완료해 주는 동시에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공공구매>잡지가 2019 년 발행한 <2018 년도 전국 전자상거래 교역수량 보고>에서 오피스메이트 사무용품 파트너가 거래 금액과 거래량에서 징둥 기업 구매와 수닝 빅고객에 이어 다음 순위를 차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오피스용품 중개 판매 산업의 전환

2015 년에 오피스메이트는 대리 판매 파트너에게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며 전환을 돕는 "천개 매장 계획"을 시작했다.



사진 4) 출처: 이방동리왕(亿邦动力网)

허즈(何志)는 오피스메이트가 20 년 이상 전자 상거래, 정보화, 스마트 창고 물류 관리, 팀 관리, 비즈니스 관리 및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축적된 경험을 내 보내 대리 판매상의 조직 구조, 운영 모델과 정보화, 물류 창고 모델, 비즈니스 확장 모델의 전환을 도우며 오피스메이트의 도시 서비스제공 업체로서의 역할을 맡고 배송 서비스와 판매 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다.

대리 판매상의 전환은 일부 대형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결합하여 현지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에서의 장점을 공동으로 높이고 마지막 100 미터까지 교부하는 장점을 크고 강력하게 만든다. 허즈(何志)는 현재 아주 많은 대리 판매상이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산업이 이미 어느정도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 판매상이 전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동시에 허즈(何志)는 오피스메이트가 "플랫폼 + 개인"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합작 모델을 지녔는데 즉, 대리 판매상이 이번 라운드에서 도태되더라도 대리 판매상 경영자는 기업파트너로 전환하여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사적 트래픽을 사용자에게 접촉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하는 동시에 오피스메이트는 가치를 창출한다.

오피스메이트의 다음 계획은 정보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품 교역에서 To B 디지털 공급망 구매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무용 물자에서 사무용 비물질 서비스로 이어지는, 업계에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2007 년 대리판매 플랫폼으로 탄생한 링시엔웨이라이커지그룹유한공사(领先未来科技集团有限公司)는 국가가 제창한 햇볕 구매 정책하에서 2014 년부터 기술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 제품 솔루션, 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및 기업 구매 전자상거래화 능력을 강화했고 완벽한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했다. 현재 링시엔웨이라이커지그룹(领先未来集团) 인터넷 쇼핑몰은 16 대분류에서 17 만개 이상의 SKU 의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B2B 빅오피스 시장은 긴 체인의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소비 인터넷과 비교하자면 하나의 아주 긴 여정이다."라고 허즈(何志)는 강조했다.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높이고 관리하는지, 빅오피스용품 산업 참여자 모두가 직면하여 사고해야 할 문제다.

3. 파견, 아웃소싱과 신경제 하에 꿈틀대는 중국의 유연 고용 시장

— 이오왕(亿欧网) 제공

이오 싱크 탱크(亿欧智库)는 최근 <하나의 불꽃이 초원을 불태워 버릴 수 있다——2020 년 탄력 고용 산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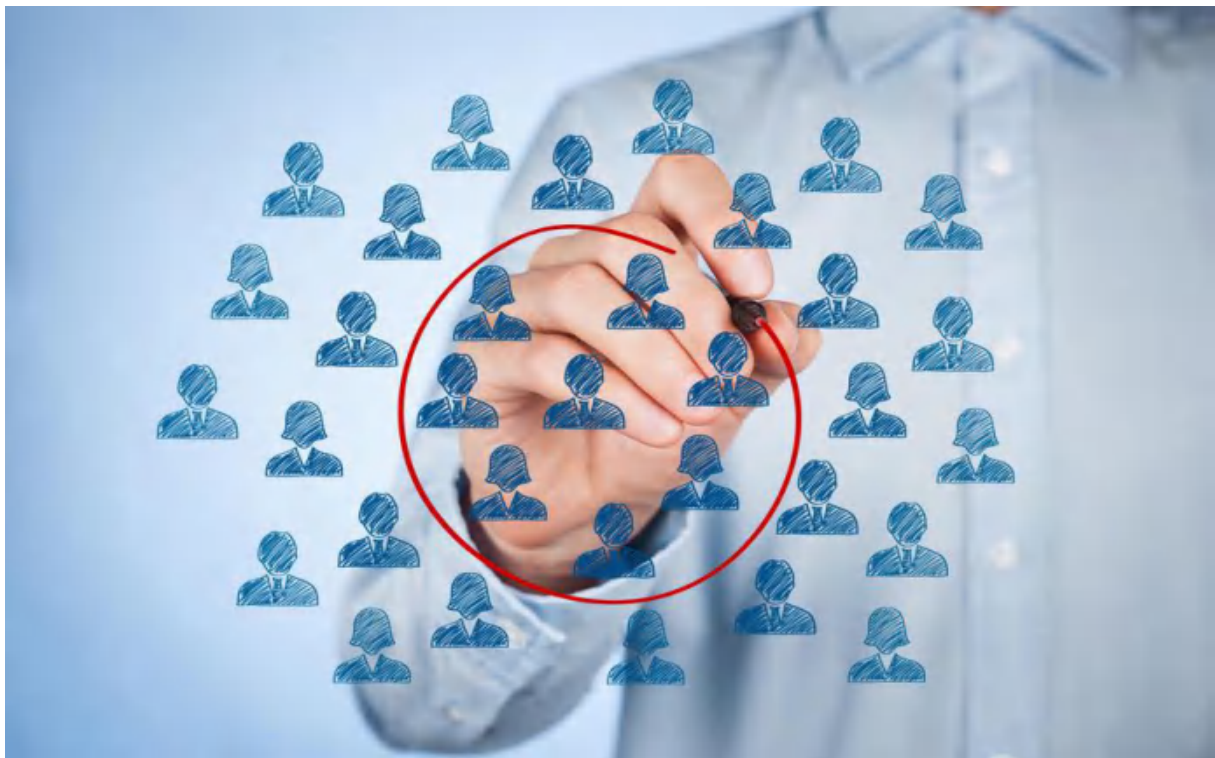


사진 1) 출처: 123RF

2020 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전염병의 유행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국제 통화 기금(IMF)은 4 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여 올해 선진국 경제가 6.1% 축소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1 % 축소하며, 세계적인 실업 대란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유연한 고용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기업의 주기적으로 필요한 고용을 만족시키고 고용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취업 인구에게 보다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취업 압력을 완화하며 조세 통제를 강화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 정책 지원 및 사회 발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탄력 고용이 다양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유연한 고용 시장의 근원인 미국은 현재 발전이 비교적 성숙했을까? 중국과 해외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탄력 고용 서비스 제공 업체는 어떻게 가야 할까?

유래

유연 고용제는 미국에서 20 세기에 처음 생겨 났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포스트 포디즘' 시대였으며 생산 과정과 노사 관계의 유연성(탄력성)이 특징이었다. 주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관, 재료, 인력, 기업 생산 관계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물통 원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강점과 결합하여 유연한 단위나 그룹을 형성한다. 이 부분의 생산 노동력은 유연 고용 근로자를 포함했다.

세계 경제 불황과 제 2 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미국의 사회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유연한 고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노무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법률과 정책의 제약, 시장이 촉진됨에 따라 노무 인력 파견은 점차적으로 '아웃소싱' 형태로 진화하여 유럽, 미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 추진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오싱크탱크(亿欧智库)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을 비교했을 때 유연 고용 추세는 경제 불황 말기에서 개혁 초기 단계에 모두 나타났으며, 이 단계의 경제적 특성은 경직된 경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연 고용은 포디즘(Fordism)에서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으로의 전환기에 나타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개혁 시대에, 중국은 개혁 개방기에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과 경제 시스템의 자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연 고용의 합법성과 보편성도 단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의 보급률에 영향을 미쳤다.

해외는 인력 파견과 아웃소싱에 초점을 맞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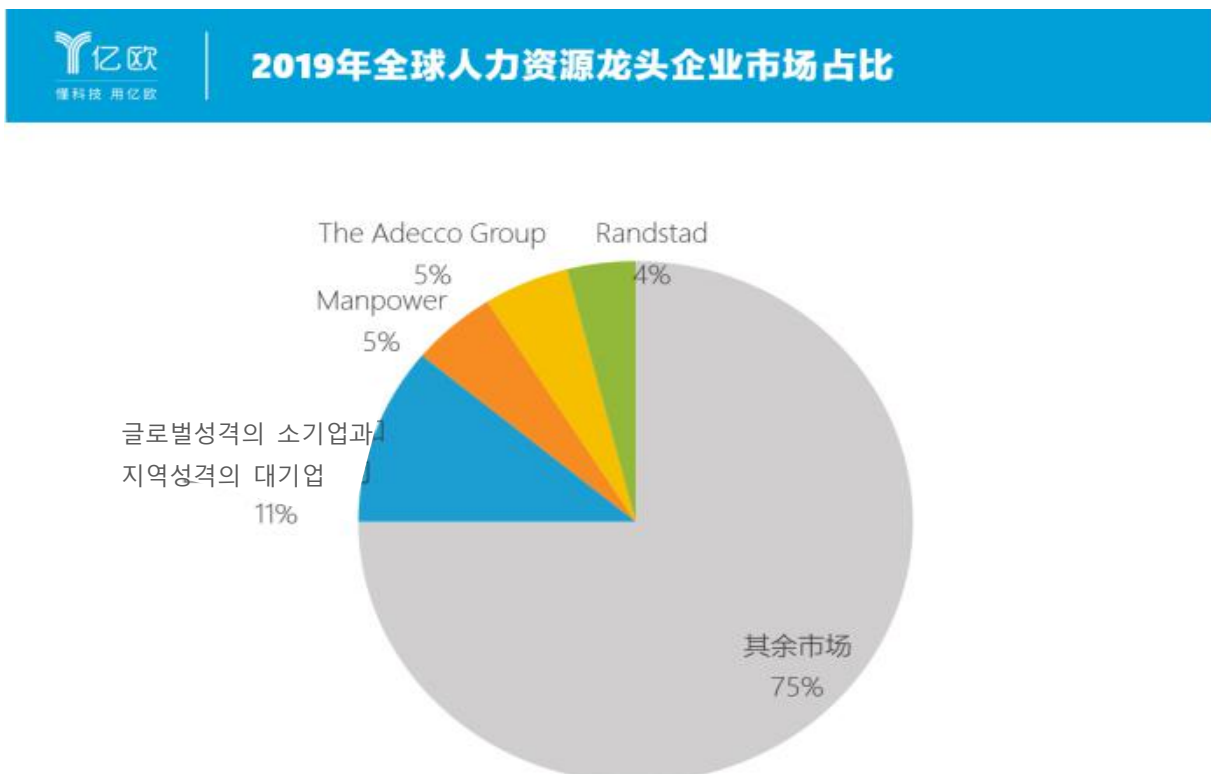


표 1) 출처: The Adecco Group 2019 재무년도보고서. 2019 년 글로벌 인력자원

해외 탄력 고용 노동 시장은 100 년 이상 발전해 왔으며, 그 발원지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성숙했지만 인적 자원 시장과 마찬가지로 탄력 고용 노동 시장은 매우 세분화 되어있다. 2019 년 상위 3 대 기업인 Manpower, The Adecco Group, Randstad 는 인력자원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이 14 %에 불과했다.

현재 유연한 고용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통적 인적 자원 회사이며, 주요 사업은 인력 파견 (해외에서는 직원 임대라고도 칭함)과 아웃소싱이다. 이러한 종류 업체가 형성된 원인은 유럽과 미국의 현지 시장 환경, 법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고용 관계는 이중 고용주 책임이다. 즉 노동자는 고용 기업과 인력 파견 서비스 업체와 동시에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삼자간 고용 관계는 고용 관리에 문제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수량이 많고 고용 규정이 매우 번거롭다.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고용주 조직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PEO 는 또한 고용인력 임대 회사(Employee Leasing Firm)로 알려져 있다. 해당 PEO 서비스는 중국의 인사 대행, 노동 인력 파견과 유사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용 리스크를 줄이면서 인력 수요 피크기와 비수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외 직무 아웃 소싱, 프로세스 아웃소싱, 채용 아웃소싱 등 인사 서비스 중의 각종 프로세스에서도 아웃 소싱 수요가 출현했는데, 인력 파견과 아웃소싱의 유연한 고용 모델은 서비스 제공 업체를 기업의 공공 HR 부서 로 만들었다.

유연한 고용의 중국 특성: 공유 경제와 결합

중국에서 유연한 고용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업그레이드, 인구 통계학적 배당의 소멸, 노동자 개성화 수요의 산물이다.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 형식은 유연한 고용 시장에 대한 새로운 고용 모델 수요를 제공하고 유연한 고용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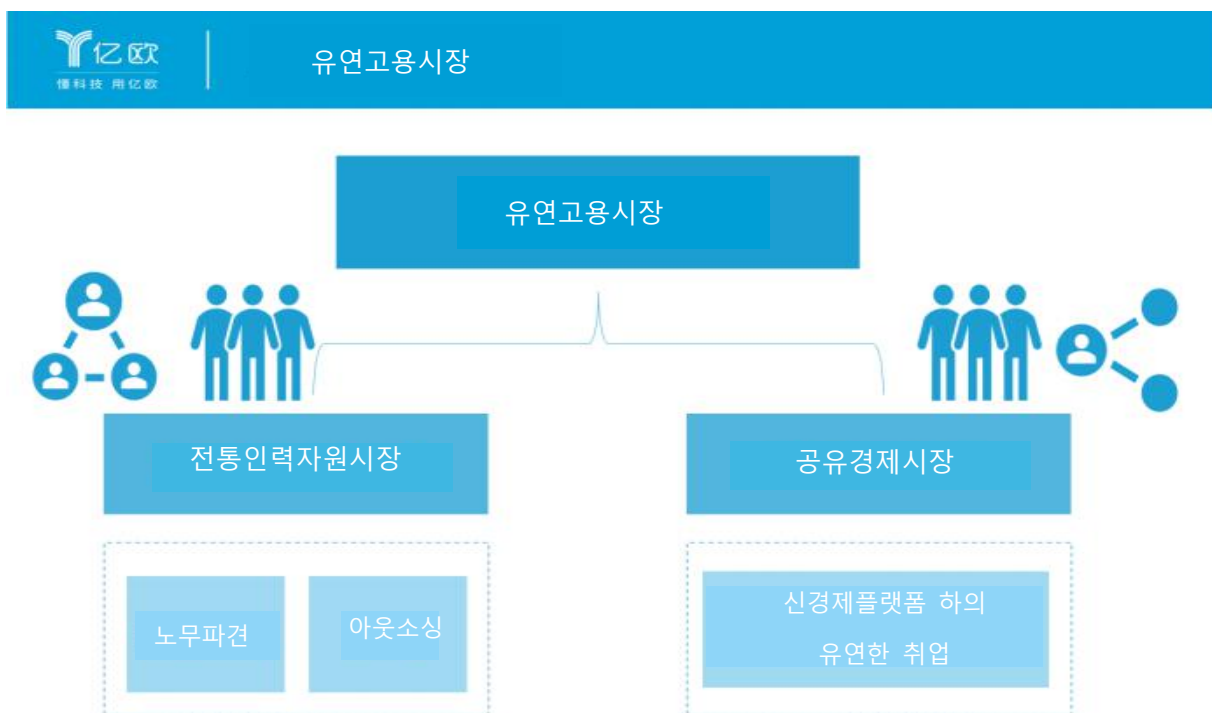


표 2) 출처: 이오싱크탱크(亿欧智库). 유연고용 시장

2020 년 3 월 국가 정보 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공유 경제 발전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9 년 공유 경제 시장 교역량은 32828 억 위안, 공유 경제 참여자 수는 약 8 억명으로, 이중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수는 약 7800 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 %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공유 경제가 여전히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며, 고용 안정화 및 소비 촉진에 대한 잠재력이 더 발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새로운 경제 플랫폼 하에서 디디(滴滴), 메이투안(美团) 및 다양한 지식 결제 플랫폼은 빠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 시장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노동 파견 및 아웃소싱에서 클라우드 소싱(편집자 주: 일반 대중이 기업 내부 인력을 대체하는 현상), 겸직 등 경제 합작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국의 현 단계인 이 신흥 시장에서 유연한 노동 서비스의 발전 속도와 성숙도가 이미 다른 국가를 추월했지만, 노동 파견 및 아웃소싱과 같은 전통적인 유연한 노동 서비스는 여전히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2020 년 7 월 메이투안(美团), 어러므(饿了么), KFC 등 즉석 배달 노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하오(趣活)가 상장되어 신형 서비스 제공 업체로 유연한 고용 산업에 진입했다. 취하오(趣活)는 음식 배송 외에도 인터넷 호출 차량 기사, 가사도우미, 공유차량 운영유지 보수 등 여러 경우에 필요한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하나 실제 업무량이 비교적 작아 미래 발전 공간은 비교적 크다.



사진 2) 출처: 취하오커지趣活科技公司 공식홈페이지. 라이더,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공유자전거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역할의 인력을 파견해준다는 내용 소개

총제적으로 신경제의 탄력적 고용 모델은 아직 해외에서 벤치마킹될 수 없으며, 더구나 중국의 유연한 고용 폭발 가능성과 발전 속도는 해외 시장을 능가할 것이다. 중국의 유연한 노동 서비스 제공 업체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을 탐색할 때 본국의 국가적 상황과 결합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외국 모델을 모방해서는 안된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63) AI와 양자 컴퓨팅에 10억 달러 지출하는 미국

— 지동서(智东西) 제공

미국은 7개 AI 센터와 5개 새로운 QIS 센터를 건립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사진 1) 출처: 지동서(智东西)

8월 27일 소식에 따르면 어제 백악관은 12개의 인공 지능 (AI) 및 양자 정보 과학 (QIS) 연구 개발 기관을 건설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Amazon, Google, Intel 및 기타 많은 민간 기업도 이 양대 프로젝트의 투자 계획에 참여할 것이다.

ECONOMY
NATIONAL SECURITY
BUDGET
IMMIGRATION
CORONAVIRUS.GOV

INFRASTRUCTURE & TECHNOLOG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vesting \$1 Billion in Research Institutes to Advance Industries of the Future

August 26, 2020 | 4 minute read

SHAR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aking strong action to ensure American leadership in the industries of the future—artificial intelligence (AI), quantum information science (QIS), 5G communications, and other key emerging technologies that will shape our economy and security for years to come.

사진 2) 출처: 지동서(智东西)

백악관이 최근 제출한 2021 년 비국방 예산에 따르면, 미국의 AI 및 QIS 예산은 올해 17 억 달러에서 약 30 % 증가한 22 억 달러에 육박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은 AI 에 약 15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20 년의 11.2 억 달러보다 높다: QIS 에는 6.99 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2020 년 5.79 억 달러보다 높다.

앞서 올해 2 월, 백악관은 2020 년에서 2022 년 사이에 미국의 연간 AI 지출을 20 억 달러 이상, 연간 QIS 지출을 8.6 억 달러 이상 지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주: 미국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기관에 10 억 달러를 투자하는 중>기사 전문 링크가 본문 끝에 첨부되어 있다.

01

7 개의 AI 센터에 5 년간 1.4 억 달러를 투자

7 개의 AI 연구 센터는 미국 대학에 있다. 각 연구소는 5 년 이내에 2 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중 5 개는 NSF 미국 국가과학기금회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2 개는 미국 농무부 국가 식량과 농업 연구소의 지원을 받게 된다.

각 AI 센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먼에 있는 오콜라호마 대학교는 날씨, 기후, 해안 해양학 신뢰 AI 연구소를 주관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5 년간 1.4 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되며 지금까지 미국 AI 연구와 인력 발전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연방 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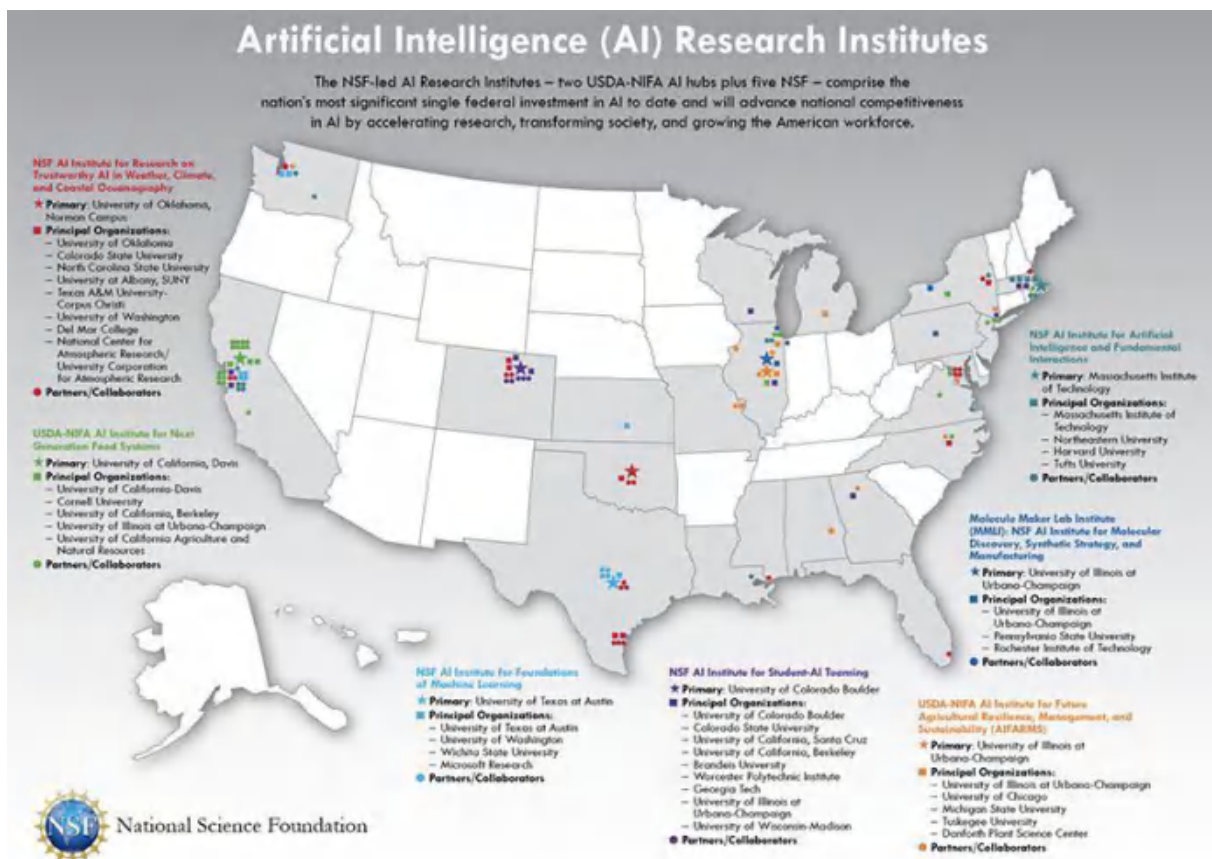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지동서(智东西)

NSF 총관리자 Sethuraman Panchanathan 은 "NSF 는 AI 연구와 인력 개발에 대한 오랜 투자 역사를 거쳐 오늘날 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수많은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NSF 는 매년 AI 연구에 5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2020 년에 NSF 의 5 개 인공 지능 연구소를 지원할 것이고 학계, 산업계, 정부를 위한 허브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대 발전과 발전 동력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을 AI 방면에서 수십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NSF 는 2021 년 여름에 다음 연구소에 융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4) 출처: 지동서(智东西)

NSF 는 미국 농무부 NIFA 와 같은 연방 기관 파트너 외에도 Accenture, Amazon, Google, Intel 과 같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다음 8 개 분야의 조직을 지원한다.

인간과 기계 상호 작용 및 협업 (Human-AI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

최적화의 발전 (Advances in Optimization)

AI 와 개선된 사이버 인프라 (AI and Advanced Cyberinfrastructure)

AI 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전 (Advances in AI and Computer and Network Systems)

동적 시스템 (Dynamic Systems)

AI 증강 학습 (AI-Augmented Learning)

생물학을 발전시키는 AI (AI to Advance Biology)

AI가 주도하는 농업과 식량 시스템 혁신 (AI-Driven Innovation in Agriculture and the Food System)

02

5 개의 QIS 센터에 5 년간 6.25 억 달러 투자

미국 에너지자원부 (DOE)가 자금을 지원하는 5 개의 양자 정보 과학 (QIS) 센터는 신형 양자 컴퓨터 개발과 테스트를 하는 플랫폼에 집중하며, 본질적으로 깨지지 않는 양자 인터넷 기술의 확립,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센서 등 QIS 관련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자원부 (Department of Energy)는 센터에 6.25 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외에도, 민간 파트너와 대학도 센터에 3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된 5 개의 QIS 센터는 다음과 같다.

(1) Q-NEXT-차세대 양자과학과 엔지니어링 센터: 주도하는 단위는 미국 Argon National Laboratory 로 양자 네트워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자 기술의 실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양자 표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2) CQQA-양자 이점의 협동 설계 센터: 선두 단위는 미국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이며 NISQ (noisy middle quantum) 컴퓨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 년 동안의 종합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본 재료, 장비 성능과 양자 오차 교정이 각각 10 배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이 결합되어 적절한 경우 1000 배 최적화된 컴퓨팅 지표를 제공한다.

(3) SQMS-초전도 양자 재료와 시스템 센터: 리더 기관은 미국의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으로 주요 임무는 컴퓨팅과 감지에 사용하는 고급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4) QSA-양자시스템 엑셀레이터: 선도 기관은 미국의 Lawrence Berkeley 국립 연구소로, 주요 임무는 과학 응용 분야에서 인증된 양자 우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 양자 설비,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공동 설계하는 것이다.

(5) QSC-양자과학센터: 선도 기관은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로, 주로 양자태 탄생, 통제 가능성, 최종 양자 기술의 확장성 방면에서 관건이 되는 장애를 극복하고, 창업과 풍부한 전문 발전 환경과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QIS 애플리케이션을 민간 부문으로 이행하여 차세대 QIS 인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03

미국의 AI 와 QIS 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한 행동 회고

미국이 AI 와 QIS 연구를 중시한 기원은 이미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2016 년에 지난 미국 정부는 이미 AI 연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구했다. 2018 년 12 월 미국 의회는 여러 QI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국가 양자 계획 법안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통과시켰다.

2019 년 2 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새로운 AI 국가 전략을 시동하는 행정 명령 13859 호에 서명했다. 2020 년 2 월 백악관은 미국 AI 발전을 개괄하고 미국의 AI 계획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미국 인공 지능 제안 첫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인공 지능 제안 첫째 연례 보고서>는 미국이 'AI 연구 개발, AI 자원 공개, AI 혁신에 대한 장애물 제거, AI 인재 팀 육성, 미국 AI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환경 촉진, 정부 서비스와 작업에 신뢰할 수 있는 AI 제공' 등 6 가지 주요 정책과 해법에 지원할 것을 강조한다.

Public Law 115-368 115th Congress

An Act

Dec. 21, 2018
[H.R. 6227]

To provide for a coordinated Federal program to accelerate quantum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15 USC 8801
note.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a) SHORT TITLE.—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b) TABLE OF CONTENTS.—The table of contents of this Act is as follows:

- Sec. 1. Short title; table of contents.
- Sec. 2. Definitions.
- Sec. 3. Purposes.

TITLE I—NATIONAL QUANTUM INITIATIVE

- Sec. 101. National Quantum Initiative Program.
- Sec. 102. 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ice.
- Sec. 103. Subcommittee on Quantum Information Science.
- Sec. 104.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dvisory Committee.
- Sec. 105. Sunset.

TITLE II—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QUANTUM ACTIVITIES

- Sec. 20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ctivities and quantum consortium.

TITLE III—NATIONAL SCIENCE FOUNDATION QUANTUM ACTIVITIES

- Sec. 301. Quantum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 Sec. 302. Multidisciplinary Centers for Quantum Research and Education.

TITLE IV—DEPARTMENT OF ENERGY QUANTUM ACTIVITIES

- Sec. 401. Quantum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program.
- Sec. 402. National Quantum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enters.

사진 5) 출처: 지동서(智东西). 미국 <국가 양자계획법안> 캡처 화면

법안 링크: <https://www.congress.gov/115/plaws/publ368/PLAW-115publ368.pdf#page=11>

오늘날 미국 국가 과학 기금회가 이끄는 AI 연구소와 미국 에너지자원부가 이끄는 QIS 연구센터는 미국을 위해 AI와 QIS 연구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미국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구 기관에 10 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래 산업 발전을 촉진>전문: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인공 지능 (AI), 양자 정보 과학 (QIS), 5G 통신과 기타 미래 몇 년 동안 우리의 경제와 보안에 영향을 미칠 핵심 신흥 기술을 포함한다.

오늘 백악관에서 국가 과학 기금회(NSF)와 에너지자원부(DOE)는 전국에 12 개 새로운 AI와 QIS 연구 개발 기관을 설립하며 10 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선포했다.

NSF 의 AI 연구소와 DOE 의 QIS 연구센터는 미래에 이러한 주요 산업을 위해 공동으로 국가 R&D 센터로 담당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차세대 인력을 배양할 것이다.

미국 국가 과학 기금회와 기타 연방 파트너는 NSF 가 이끄는 7 개의 AI 연구 기관에 5 년 이내에 총 1.4 억 달러의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합작 연구와 교육 기관은 기계 학습, 합성 제조, 정밀 농업과 예측 판단과 같은 AI 연구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다. 연구는 오클라호마 노먼 대학교,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대학에서 진행된다.

미국 국가 과학 기금회(NSF)은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인공 지능 연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내년 여름까지 합작 파트너 기관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 3 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NSF 는 AI 활동에 매년 5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이는 연방 비국방 AI 연구 개발의 최대 동력이다.

QIS 연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자원부는 향후 5 년 이내에 5 개 센터에 최대 6.25 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5 개 센터는 Argonne, Brookhaven, Fermi, Oak Ridge,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ies 에서 미국 에너지자원부 국립 연구소 팀이 이끌 것이다.

각 QIS 센터는 여러 기관과 과학, 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 연구 팀을 구성한다. 민간 부문과 학계는 이 센터를 위해 추가로 3 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다.

이 센터는 양자 네트워킹, 센서, 컴퓨팅, 재료 제조를 포함한 일련의 주요 QIS 연구 주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중요한 기초 연구 개발을 통해 미국은 QIS 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기술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AI 와 QIS 기관의 설립은 발견과 혁신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노동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NSF 의 AI 연구소와 DOE 의 QIS 연구 센터는 모든 배경, 연령, 기술 수준의 미국인이 21 세기 미국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 외부 활동을 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기관들이 자유 시장 기술 발전에 대한 미국 고유의 접근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 연구소는 연방 정부, 산업계, 학술계를 한데 모아 미국 혁신 생태계의 모든 역량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미국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역사는 미국이 하나의 사상가, 행동가, 혁신가의 나라임을 입증했다. 현대 인터넷의 탄생부터 인류의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큰 기술 혁신의 자랑스러운 곳이다. AI 와 QIS 와 같은 신흥 기술은 의료, 통신, 제조업, 농업, 운수, 보안 등의 분야에서 미국인들에게 혁신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오늘 발표된 AI 및 QIS 연구 센터에 대한 10 억 달러 투자는 3 년 이상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선두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에서 차세대 첨단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원본 링크: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trump-administration-investing-1-billion-research-institutes-advance-industries-future/>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중국 블록체인 도시 혁신 발전지수' 발표, 베이징 1 위 차지 (BLOCK MEDIA, 2020.09.07)

지난 6 일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거래회의에서 정식 발표된 '2020 년 중국 블록체인 도시 혁신 발전지수' 보고서에서 베이징(北京)이 1 위를 차지했다.

현지 블록체인 도시 혁신 발전지수를 보면, 베이징이 1 위이고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83 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산업발전 ▲인기검색 순위 ▲정책 등 4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현지 블록체인 도시 혁신 발전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 발표자인 마샤오핑(馬小峰) 동제대학 블록체인 연구원 원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혁신일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신이자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다"며 "블록체인은 현지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과 함께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2. 중국, 공무원 비리 '블록체인'으로 척결 (비아이 뉴스, 2020.09.06)

중국 정부가 법관과 경찰 등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로 구동되는 신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2018 년 말 최고인민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에 장기 보관하던 광업권 사건 관련 공식 문서를 분실했다고 밝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판사는 나중에 자신의 실수로 공식 문서를 분실했다고 시인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법원의 공식 문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6 일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진써차이징(金色财经)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신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법부와 경찰의 부패 등 위법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7 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개혁의 일환으로 음성 인식과 텍스트 기록 활성화를 통한 법원 문서 간소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컴퓨터 분석과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가 전달한 각종 명령과 판결문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오류를 식별한다. 또 AI 기술을 통해 사법부와 경찰 등 중대 안전 분야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해 절차상의 위법 행위 발생을 막고 법치를 강화한다.

귀성쿤(郭声琨)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는 "국가 안전 체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방지해야 할 악습은 부패, 불공정, 규칙 집행 불이행 등"이라며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직책은 검사, 경찰, 교도관 등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법원과 검사 사무실에 대해 실시간으로 디지털화 감독을 하며, 적용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으로 승부 (COINREADERS, 2020.09.06)

팅신원, 알리원, 화웨이원 등 중국 3 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선보이며, 암호화폐가 아닌 차세대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 해외는 실증 실험을 마치고,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이중에서 텡신원은 알리원과 화웨이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속속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6 일 중국 IT 전문매체 테크웹(techweb)에 따르면 가트너는 최근 발표한 '블록체인 컨설팅과 개념증명 개발 서비스 시장 가이드' 보고서에서 텡신원의 산업 블록체인 솔루션을 언급하면서 텡신원을 대표적인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했다.

가트너는 서비스 업체의 블록체인 전략 컨설팅, 사용환경 구축, 기반기술 발전, 데이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통합과 서비스 관리 등 방면의 종합적인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대표 서비스업체를 선정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전략 포석을 시작한 텡신원은 기반 엔진부터 SaaS(Software as a Service)까지의 풀 스택(Full Stack) 제품 라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업, 정부 등에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와 산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텡신원의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 금융, 증거보관, 전자영수증, 데이터 요소, 신원 관리,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 등 7 대 분야에서 완벽한 제품과 응용 솔루션을 갖췄다. 이 중 사법 분야의 '즈신렌(至信链)', 금융 분야의 '룽쯔이(融资易)', 재정 분야의 전자영수증 사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선전시와 협력해 세계 첫 건축자재 추적 플랫폼을 구축했고 중국 교육부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교육 관련 신분증을 만들어 부서, 업무, 지역 간의 앱 공유를 실현했다.

4. 칼 빼든 中선전거래소...상장사 관리 더 엄격하게 (아주경제, 2020.08.31)

중국 선전증권거래소가 거래 절차 간소화 등 문턱을 낮추는 대신 상장사 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31 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财经)에 따르면 전날 선전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 리스크 분류 관리 방법'을 발표해 시행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경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및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상장폐지 리스크 등 5 가지 척도로 상장사 리스크를 평가한 후 4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방법에 따라 상장사는 고위험, 준(準) 고위험, 주의, 정상 등 4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고위험 상장사 군에는 주요 사업이 중단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된 기업, 파산 혹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기업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최근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부적정 의견이 있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도 부합된다.

또 기업이나 자회사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도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고위험이나 준 고위험 등급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장사는 향후 등급 평가때 원칙적으로 정상 등급으로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선전증권거래소는 상장사 리스크 관리 감독 제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도 구축했다. 철저한 상장사 관리·감독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번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중국이 경기 둔화 속 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 전용증시인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에서 개혁을 착수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중국 당국은 창업판에서 주가 상·하한가 폭 규제 완화, 주식 등록제 등 창업판 상장·거래 개혁조치를 시행했다. 그간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하이테크기업 전용 증시인 '커창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된 조치가 이날부터 창업판에서 확대 실시된 것이다.

창업판 개혁으로 중소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수월해지고 기술주 거래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졌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40)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본 기능과 속 기능

등교, 출근 전,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 어디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단정된 모습에 자신이 생긴다.

점심에 학교,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머리를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챙긴다. 의식의 시간을 가진다. 오후를 위해서.

하루를 마치고 세면대 앞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하루를 회상한다.

주말 헬스장에 가서, 연신 거울 앞에서 없는 근육을 찾아본다. 젊은 날을 회상하며 아쉬워하며, 앞으로 불을 근육에 이를 악문다.

거울은 사물의 겉모습을 투영한다. 거울을 통해 겉만 보는 것 같지만, 사물의 속도 본다.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인다. 거울 속 자기 모습에서 잊혀진 시간이 떠오른다. 현재를 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가 투영된다.

거울이 주는 힘이다.



모 대학교 화장실 문에 붙어 있는 거울

화장실에 앉아 일을 본다. 문에 붙어 있는 거울이 자기를 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

오직 혼자 별 생각없이 있을 곳에, 마치 남이 있는 것처럼 거울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부담스럽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거울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오늘 왜 이렇게 허겁지겁 보냈니?' 후회한다. '역시 난 잘 생겼어', 흐뭇해한다. 입술을 깨물으면서 '그녀에게 다시는 망설이지 말고 데쉬하자'고 다짐한다. 티격태격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이 맘에 걸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하듯 말을 건다. 그리고 나는 그 것에 동의한다. 그걸 따라한다. 나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울을 빌려 하고 있다.

거울 앞에서는 나는 작아진다.

나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말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참 요망한 물건이다.

거울은,

거울은, 나를 데리고 과거와 미래를 순식간에 왔다갔다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안그래 하며 조용히 압박을 가한다. 좁고 꼼짝달살 할 수 없는 화장실 안, 거울 앞에서 나는 그렇게 세뇌당한다.

거울의 본 기능은 투영이 아니고 세뇌이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일본이 대국에 머무를지 이류국으로 떨어질지, 앞으로 2년내에 결정난다' 문명평론가에게 던지는 각오 (아사히신문 글로벌+, 2020.8.31)



사진 1) 출처: 아사히신문 글로벌+, 제러미리프킨씨=2020 년 2 월, 미워싱턴

1930 년대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실시했던 사회경제정책 뉴딜. 기후위기가 외쳐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환경과 사회경제정책을 일체화시키는 녹색 뉴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나 중국의 국가 계획의 어드바이저로서 정책을 제창해 온 문명 평론가 제러미 리프킨씨(75)에게 물었다.

근저 “글로벌 그린 뉴딜(NHK 출판)”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문명이 2028 년에 끝난다고 예언했다. 제 추측이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의 최신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수 함수적으로 비용이 낮아져 천연가스보다 저렴하고 원자력은 더 이상 승부가 되지 않는다. 태양과 바람은 청구서를 보내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기 위한 한계 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거대한 경제의 파괴는 언제나 인프라에서 일어난다. 특히 시장의 힘은 세다. 지난 몇 년 동안 화석연료에서 11 조달러나 되는 자금이 달아났다. 뉴욕 런던 베를린의 공적 연기금이 투자를 끌어올리면서 보험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2028 년에는 2200 만대를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한다. 장래,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는 파내지 않게 되어, 파이프라인도 정제소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씨티그룹은 이런 좌초 자산이 100 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 세계 3 위의 석탄 수입국인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현 문명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이동과 물류의 세 가지 신기술이 동시에 확산되었을 때 큰 전환이 일어났다. 19 세기의 제 1 차 산업혁명에서는, 영국에서 증기 기관을 사용한 염가의 인쇄 기술이 발명. 공교육이 가능해졌고 신문과

잡지가 생겨 전신도 생겼다. 신 에너지원인 석탄에 의해 철도망이 깔리고, 도시국가와 농촌이라고 하는 작은 시장으로부터, 국내 시장이 탄생. 통치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되었다. 화석연료의 채굴과 정제,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본주의가 확산되었다. 새로운 인프라가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본의 미래, 2 년 안에 결정된다

20 세기 2 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역이었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전화에서 시작되어,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석유가 에너지원이 되어 내연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가 새로운 이동 수단이 되었다. 도시는 교외로 확장되었고 컨테이너선과 제트기로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탄생했다. 제 2 차 산업혁명으로 태어나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현 문명의 인프라는 앞으로 10~15 년이면 총효율이 피크가 된다. 그래서 저는 3 차 산업 혁명이 필요하다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건의했다.

3 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혁명이다. AI 나 로봇만을 가리켜 4 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인류는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로 연결될 것이다. 빅 데이터의 알고리즘으로 통치된 넷은 재생에너지망과 통합. 수백만개의 중소기업, 농가, 협동조합, 지역조직, 대기업이 참여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모으고 남는 것은 수백만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이동·물류도 디지털화되어 전기나 연료 전지로 달리는 탈 것이, 자동 운전으로 이동한다. 스마트 센서가 세계의 공장, 농장, 집, 차에 부착되어 모든 것이 인터넷 위에 성립되고 있다(IoT). 인류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뇌와 신경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세계(글로벌)와 지역(로컬)이 함께하는 글로컬리제이션이 이루어지게된다.

그런 구조가 당장 되는 것일까. 이미 이것에 가까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수억 명이 음악과 SNS 를 공유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졸 자격증을 따 위키피디아에 기여하고 지식을 쌓고 있다. 지역에서는 에너지를 지소하고 있다. 이러한 셰어링 이코노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총효율은 극적으로 오르고 고정비도 온실 가스 배출량도 떨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고받는 자본주의 시장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너무 느리다. 향후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로 바뀐다. 녹색뉴딜은 디지털 똑똑한 3 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다.

일본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 년이 일본이 강대국 중 하나로 머물지, 이류국으로 떨어질지를 결정한다. 에너지 분야는 아킬레스건이다. 유럽에서는 벌써 30%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나라가 있지만, 일본은 7% 화석연료의 수입을 고집해, 석탄 화력으로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조달해서는 비싸지고, 온난화도 진행된다. 일본은 세계 최초의 수소사회를 선언했다. 일본의 독자적인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호주에서 갈탄을 사들여 수소로 만들어 CO2 를 땅속에 되돌리는 것.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싸다.

최연소 29 세에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된 오카시오코르테스 씨 등 젊은층이 녹색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현 상태를 인류의 위기로 여기는 구세대의 정치가는 적다. 희망은 Z 세대나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이다. 기후위기와 인류가 멸종될 상황에 직면해 우리가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 지금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세계적인 녹색뉴딜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세대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국가나 종교나 지역과 관계없이 인류가 멸종위기의 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의식의 강력한 변화이다.

2. 분석 'JDI'가 상징하는 일본 하이테크산업 '제 3의 패전' (Foresight, 2020.8.31)

일본 역대 정권이 표방해온 하이테크 입국의 자리가 풍전등화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른바 제 2의 패전으로 일본 전자업체들은 가전과 PC 등 완제품 시장에서 모조리 존재감을 상실했다. 초박형 패널 생산에 사람·물건·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한국 '삼성전자' 등에 순식간에 TV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게 기억에 남지만, 그 '패전' 이후 전자부품과 고기능 부재 등으로 활로를 찾아오던 일본 제조업이 최근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의 사이에서는, '시장의 역동성으로부터 크게 어긋난 "국책"이 산업계의 신진 대사를 저해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새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 주도의 참혹한 결과

『일본경제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세계시장조사의 2019년판(8월 13일 게재)으로 일본 기업의 쇠락이 한층 선명해졌다. 스마트폰용 중소형 액정패널과 리튬이온전지 절연체에서 중국 업체에 점유율 1위를 빼앗겼고, 반도체 D램과 평판 TV에서는 한국 업체와의 격차가 커졌다. 기술 이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74개 품목에 대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 기업은 전년의 11개에서 7개로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과 나란히, 25개의 미국 기업과 12개의 중국 기업으로 격차가 컸다. 일본 기업 경영자의 인재 부족도 그렇지만 아베 정권과 이를 지탱한 경제산업성이 8년간 쏟아낸 산업정책이 모두 빗나간 것이 그 배경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아베 신조(65)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말을 부쩍 꺼내지 않고 있다. 8월 28일의 사임 표명에서도 밝혔던 대로, 스스로의 컨디션 문제도 있어 기력의 쇠약이 외부에서 보기에 현저한 것도 관계하고 있던 것 같지만, 모두에 소개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일본 기업의 쇠락은, 신형 코로나와는 무관계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닛케이 조사에서 중국의 '京東方科技集團'(BOE)가 1위 점유율을 빼앗은 중소형 액정패널 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퇴보는 아베 정권의 친위대 격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온 정책이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마트폰 전용의 부품 공급등이 중심의 중소형 액정 패널 시장에서는, 2018년까지 '재팬 디스플레이'(JDI)가 4년 연속으로 웨어 선두에 서 있었다. 2017년 순위를 보면 'JDI'가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한국 'LG 디스플레이'로 14.4%, 3위 '샤프'가 10.8%의 판도로, 이때까지 점유율 상위 3위에 중국 기업의 그림자는 없었다. 하지만 2018년이 되자 2위 13.9%의 점유율을 차지한 '天馬微電子', 3위 12.2%의 BOE로 갑자기 중국 기업 2곳이 올라서는가 하면 JDI는 계속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16.3%로 뒷걸음질쳤다. '天馬微電子'는, 2011년에 'NEC'의 자회사였던 'NEC 액정 테크놀로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동사에 소속해 있던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제조 노하우를 흡수했다. 또 'BOE'는 2017년 12월 안후이(安徽)성에 세계 최대 LCD 공장을 가동한 것을 비롯해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매년 거대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런 결과 2019년이 되면 BOE가 15.9%와 3.7%포인트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15.3%인 JDI는 2위로 밀려났을 뿐 아니라 3위인 '天馬微電子'가 14.6%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실소

원래 'JDI'는, '일본의 총력을 결집해 국산 기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경제산업성의 기치 아래에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소니'의 액정 부문을 통합해, 2012년에 발족했다. 그러나 잘 만들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 옛 통상산업성 시절부터의 나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의 입김이 걸린 관민 펀드 '산업 혁신 기구'(2018년에 개편해, 펀드 기능은 주식회사 'INCJ'가 계승했다) 산하에 들어간 'JDI'의 모습은, 졸고(2019년 8월 5일 '민간이 뒤치다꺼리' '경제산업성 인맥'의 성장 전략 '파탄'에 원망의 소리)에서 상술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산업성 인맥이 주도하는 경영으로 막다른 'JDI'는,

2019 년 3 월기 연결 결산에서 자기자본 비율 0.9%로 자본초과 직전에 빠져, 의지하는 관민 펀드로부터의 '우유보급'도 중지된 나머지, 중국·대만의 투자 회사나 전자 기기 메이커에 금융 지원을 의뢰했다. 결국 일본의 총력을 결집하여라는 제목을 버리고 염치도 없이 중대세에 매달린 셈인데,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이 드러나자 한 차례 관심을 보였던 중대업체들은 속속 지원그룹에서 이탈했다. 더 이상 일본 기업에서 배울 것은 없고 산하에 넣을 가치도 없다고 본 것이다. 라고, 엘렉트로닉스 산업 담당의 증권 애널리스트는 추측한다. 결국 2014 년 3 월 주식 상장 때 769 엔으로 첫 선을 보였던 JDI 의 주가는 2019 년 9 월 말 이 회사가 1000 억엔 초과 자본잠식으로 전략하자 50 엔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 회사가 파탄을 면한 것은, '대형 기업 도산 회피'를 금과옥조로 해 온 아베 정권의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메가뱅크 등은 신규의 신용공여에는 응하지 않아도, 관저와 경제산업성을 고려해 융자의 회수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좀비인 채로 오래 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모라토리엄이 반년 가까이 지속된 뒤 2020 년 1 월 말에야 독립계 투자고문 '딸기에셋 매니지먼트'가 1000 억엔 규모의 금융지원에 응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자본잠과는 해소됐다. 그러나, 경영 톱이 설득력이 있는 재건축을 밝히는 일도 없고, 오히려, '일본 흥업은행'(현미즈호 은행) 출신으로 2019 년 9 월에 'JDI'사장으로 취임한 키쿠오카 미노루(57)는 요즈음,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따라 '헬스케어에의 참가를 검토중'이라고 갑작스럽게 신규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너무나 뒷북적인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여져 업계 관계자의 사이에서 실소를 사는 상황이다. 실제로 51 엔이라는 현재 주가(8 월 28 일 종가)가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싸늘한 시선을 상징한다.

현 사장의 분식 관여는?

JDI 가 해외 지원그룹과 주식시장 모두 내팽개치는 데는 또 한 가지 애처로운 이유가 있다. 전대미문의 "분식 스캔들"이다(항간 "부적절 회계처리 문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굳이 "분식" "부정 회계"라고 부른다). 2019 년 11 월 26 일, 동사의 전 경리·관리 통괄 부장이,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서 자신이 과거에 부정한 회계 처리를 실시하고 있던 것을 메일로 'JDI'관계자에게 통지. 이 전 부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8 년 12 월 말 징계해고된 상태다. 이 횡령 의혹 건이 세상에 공표된 것은 2019 년 11 월 21 일이며, 전 부장은 5 일 후에 경영진의 관여를 지적하는 고발을 한 것이다. 단지, 전 부장은 고발로부터 4 일 후인 11 월 30 일에 사망. 자살로 알려져 있다. 그 후, 'JDI'는 사외 위원만으로 구성된 제삼자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해, 금년 4 월 13 일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00 억엔 규모의 재고의 가공 계상이나 평가감소의 부정한 회피, 그 외 비용이나 손실의 재고등이 밝혀져, 이 결과를 받아 'JDI'는 2014 년 3 월기부터 2020 년 3 월기 상반기(4~9 월기)까지 6 년반의 결산을 정정했다. 보고서는 "부적절 회계처리의 상당 부분은 전 경리·관리통괄부장이 주도했고, 일부는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지시에 달렸다"고 밝혔다. 고 지적하였지만, 현 경영진의 관여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본문에서는 익명으로 돼 있지만 역대 최고경영자(CEO)나 CFO 들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시했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속속 나온다. "이들(영업외 이익의 영업이익 이체 등)의 제안은 J 씨로부터 B 씨에게 전해졌고 B 씨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전해지는 동시에 제안한 A 씨 등에 대해 찬사가 전해졌다"(필자 주: A 씨는 전 경리·관리 통괄부장, B 씨는 2012 년 12 월 당시 CEO 인 J 씨는 CFO) 이런 형편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분식이 일어난 배경으로서 'JDI'의 역대 CEO 나 CFO 가 경리나 제도 회계의 실무에 정통하지 않았던 것에 가세해 'JDI'의 골격을 만들어낸 '최대 주주의 'INC'(실체는 경제산업성)가 CEO 를 포함한 이사로부터 사외이사까지를 초빙해, 재무의 중요 사항이나 임원 보수 등 경영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지적. 'INC'가 실현이 어려운 목표치(특히 영업이익) 달성을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요구하면서, 'JDI'의 자주성이 저해되어 통치 체제가 왜곡된 면이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JDI 분식 스캔들은 큰 문제가 될 텐데 보고서가 나온 것은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해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6 일 만이다. 신문과 TV 의 보도는 코로나

일색이었고 공적자금을 쓴 펀드가 운영하는 국책회사의 비리는 다른 많은 경제뉴스 속에 묻혀버렸다. 'JD'는 사장 키쿠오카가 온라인 기자 회견을 열어, 큰 폐를 끼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죄했지만, 실은 키쿠오카 자신이 2017 년 7 월의 경리 재무 본부 부분부장 취임 이래, 재무 통괄 부장, 재무·IR 통괄 부장등을 역임한 경리 분야의 간부로, 2019 년 5 월부터 CFO 를 맡고 있기도 했다. 기자 회견에서 분식에의 책임을 추궁당한 키쿠오카는 '경리와 재무에서는 리포트 라인이 달랐다' 등 구차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좀비 기업 만연시킬 뿐

지난 8 월 26 일 'JD' 정시 주주총회가 두 달 늦게 개최됐다. 연기의 이유를 동사는 필리핀 등 해외 자회사의 집계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동사를 훨씬 웃도는 수의 해외 거점을 가지는 기업에서 이 정도 주주 총회가 늦은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 총회에 함께 등단 한 임원 7 명이 기립해, 부정 회계에 대해 사죄했다. 금년 3 월부터 'JD'회장을 겸무하는 '딸기에셋 매니지먼트' 사장 스콧·캐론(55)은 향후 2 년에 흑자화한다고 호언을 했지만, 동사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전용의 부재가 액정으로 유기 EL 로 시프트 해 나가는 것은 확실하고, 장래가 비관되는 재료에는 부족하지 않다. '국책 액정 메이커의 꿈이 깨진 'JD'에 대해서 경제산업성 간부는 더 이상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요즈음은 '혼다, 닛산의 통합 등 자동차 업계의 재편에 집착'(재계 수뇌)이라고 한다. 탁상업계 개편으로 부실기업을 구제해봤자 1+1은 2가 안 돼 좀비기업을 창궐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건전한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산업정책의 벡터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에서 하이테크 기업이 사라지는 제 3 의 패전이 불가피하다.(경칭 생략)

3. 아베정권 7 년 8 개월 사이 일본인은 타락했다 (Newsweek, 2020.8.31)



사진 1) 출처: REUTERS. 아베 사임회견을 비추고 있는 거대 스크린과 무관심한 사람들 (8 월 28 일 도쿄)

사람들은 권력비판을 잊고 아베에 추종. 그리고 필자는 우파, 보수파로부터 반일, 좌익으로 떠밀렸다.

아베 정권이 집권한 7년 8개월은 적어도 보수파로서는 절망과 좌절로 가득하다. 2012년 민주당 노다 정권 하에서 자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깨고 총재가 된 아베 신임 총재는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와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주최"를 내걸고 실제로 그 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정책 집에 이를 명기했다. [古谷経衡 후루야 코헤이]

2012년 당시 나는 29세의 우익이었다. 나를 포함한 우파 보수파의 거의 전부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권 및 역대 자민당 정권에서도 실현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공약을 갈망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정부 주최 행사는 제 2차 아베 정권 출범 직후 철회됐고,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는 흐지부지 되고 2017년이 되어 아베 총리 자신의 입에서 "현재는 그런 선택 사항을 뽑지 않고 있다(중의원 예산 위원회)"로 정식으로 완전 철회됐다. 제 1차 아베 정권 약 1년 동안의 단명에서 본격적인 강경파 보수 정권이 탄생할 것을 기대한 우리 보수파는 정권 탄생 벽두에 이루어진 이런 철회 조치나 방치 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선은 자민당 정권이 탄생한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공약 철회에 따른 불만은 봉인됐다. 다음으로 보수파는 매파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아베 총리에게 고노 무라야마 담화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열망했다. 보수파에게 종군 위안부 문제의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는 허용될 수 없고 앞의 대전에서의 일본의 침략적 측면을 통절히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또한 경멸해야 할 대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아베에 역사 수정 촉구한 보수파

그러나 보수파의 이런 괴기염을 나는 깨어 있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하쿠타이쿠히코 등에 의한 실증 사학으로 "일본군에 의한 부녀자를 트럭에 내쳐서"라는 강제 연행은 의심스럽지만 종군 위안부의 존재는 사실이며, 전후 일본은 반성해야 할 책임을 진다. 또한 지난 대전에서 일본이 남방작전이라 칭하며 아시아의 자원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사실이며, 침략적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 검증을 했지만 고노 담화를 철회하지는 않았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해 지난 전쟁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국책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아베 신조가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담화를 보면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꽤 재검토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파의 중추는 이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한 아베 전후 70년 담화에 상당히 불만인 것 같았다.

다음은 아베 추종의 비정상적인 대합창

그러다가, 2015년 12월 한국 박근혜 정권과 이른바 "위안부 합의"이 되었다. "종군 위안부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보수파는 이 합의 자체에 크게 못마땅해서 있었으나 나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베 총리의 이 합의 체결은 영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즉 2015년 전후부터, 아무래도 내 생각은 보수파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 같다. 보수파 주류는 전후 70년 담화에도, 한일 합의에도 크게 반대하여 아베 내각에 대해 더욱 강경하고 역사 수정주의적인 정책과 연동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포스트 아베는 거론되기 시작해 이시바 시게루의 이름이 도마에 올랐지만 보수파의 주류는 이시바에 비판적이어서 오히려 아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주하게 됐다. 나는 나 자신을 대미 자립을 주창하는 보수 주류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 보수의 주류는 어쨌든 아베 총리가 하는 일에 대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반일이라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신임된 아베 총재는 2018년 총재 선거에서 출마한 이시바와 싸웠지만 그 무렵에는 이시바를 지지하는 것은 반일(反日) 정서가 형성돼 있었다. 이시바 시게루는 헌법 9조 2항의 육해공군 전력을

가지지 않아 국가의 교전권은 없다 개정을 주창하는 개헌론자이지만 웬지 이시바를 좌익으로 인정하고 있어 아베 추종이 대합창했다.

무능한 코멘테이터

이런 보수 주류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2015 년경부터 나는 그들의 언설에 비판적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 추종 대합창은 비정상이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의 형태가 아니다. 아베 총리·총재를 신임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소소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2015 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 총재에 대한 무투표 신임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비슷한 무렵 주로 TV 해설자에는 무비판적인 아베 추종을 일삼는 자칭 문화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초 이들은 드물게 등용되어 점차 침윤전술처럼 자기만의 모습으로 날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바로 차별적인 말 실수를 하거나 SNS 상에서 루머를 퍼뜨리거나 혹은 상흔이 역척스러운 자신의 권익을 확대하겠다고 무리통인 공세에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프로그램 및 방송사에서 쫓겨났고 살아남은 것은 소수였다. 이것 대신 무미 건조한 실태의 지식·교양은 공허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미온적으로 YES 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정말 비판 정신이 결여된 무능한 코멘테이터가 늘었다. 이 경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익찬체제에 가까운 분위기

굳이 말하자면 아베 정권 7 년 8 개월의 죄란 이처럼 무미건조한 코멘테이터나 연예인이 보도의 영역까지 마구 날뛰어 온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당연히 그런 코멘테이터 선정은 아베 정권에 직접 요청된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다. 일반 대중에게는 지난 7 년 8 개월 동안 비판정신의 결여, 권력에 대한 회의정신 상실, 중립을 표표로 한 권력에 대한 추종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사사로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비포리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베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기획에 일일이 물고 늘어지자 순간 자신도 권력자의 일원이 된 것처럼 권력옹호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래도 아베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반론을 편다. 이런 사례들이 내 주위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이나 기획의 진행과 정권에 대한 평가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마련인데 그런 정신은 날아가고 있다. 익찬체제에 가까운 분위기가 점점 만연해졌다. 지성이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는 이러한 익찬적 동조 압력에 항거하고 있자, 2014 년 2015 년을 경계로 하여, 나에의 평가는 '반일·좌익'으로 변모했다.

중간 관리직의 타락

나는 뿌리 깊은 대미 자립론자이자 헌법 9 조 개정론자이며, 인간의 이성애 회의적이며 점차적인 사회개량을 양으로 하는 보수주의자이다. 그런데도 권력에 대한 회의, 동조정신을 비판하면 곧 반일좌익과 연계되는 풍조가 시작됐다. 이런 풍조는 지적 타락 외에 아무것도 아닌 비정상이다. 일본 대중 전체가 지성의 탄력성을 잃고 건전한 비판정신을 잃었다. 이는 음모론을 펼치려는 아베 정권의 지시나 공작의 결과가 아니다. 일본 사회의 구성원인 중산 상위계급이나 순전한 민영방송기업이 총리관저의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 비판정신의 상실이요 지성의 타락이다. 확실히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한, 전쟁중의 일본식 파시즘을 지지한 중간 계급 제 1 류(사회의 중간 관리직)에 의한 부의 전형이, 이 7 년 8 개월에 세력을 떨쳐 범람했던 것이다.

톱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보수파에서는 이른바 제 3 차 아베 정권 대망론과 와병 요양 후 원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이후 일본의 과제들을)

강력한 신체제에 맡기겠다고 말했는데도 아베 총리를 사모하는 대중과 자칭 언론인들이 이미 구체제에 대한 버릴 수 없는 미련과 얽은 추종정신에 매달리고 있다. 총리직을 사퇴한 아베 총리에게는 그 자신이 사직 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한 국회의원으로 직책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7년 8개월이라는 짧은 장기집권 하에서 일본 대중은 그 지적탄력성을 상실하고 정신사고는 경직되어 자발적인 권력추종이라는 웃지 못할 정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속마음에서 넘치는 열정은 어디로

포스트 아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회의 근본적 병리란 이 비판정신의 결여와 권력에 대한 무비판에 있다. 바로 이 7년 8개월이라는 절묘한 권력의 시간적 길이는 1945년 8월의 패전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일본을 간접 통치한 GHQ의 약 7년의 통치기간과 겹친다. 일본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주축인 미국의 의향을 고려해 대미 추종 정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 보수의 자민당 정치인에게는 면중복배로 언젠가는 대미 자립을 이룬다는 기골이 있었다.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건 나카소네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밀월을 구축했지만 그것은 냉전하의 국제정세 요청이었고 그의 내심 끓는 열정은 어디까지나 대미 자립이었다. 이런 면중복배의 기골조차 잃고 오로지 권력의 홍보를 믿고 중립입니다라고 표방하며 사실상 권력예찬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량하지 않으면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되든 일본인의 지적 타락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이 아베 7년 8개월이 남긴 최대의 마이너스 유산이다.

4. 실패인가 성공인가, 약 8년의 아베노믹스로 얻은 교훈 (동양경제온라인, 2020.9.2)



사진 1) 출처: 동양경제온라인. 정권탈환을 실현하기 직전, 아베노믹스를 기동으로 한 중의원공약을 발표하는 아베신조수상 (2012년 11월 12일)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8 년 가까이 끌어온 아베노믹스는 일단 마무리된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후계자 선정 결과에 따라서는 아베노믹스적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우선은 8 년 미만을 데이터로 되돌아보고, 무엇이 성공했으며, 무엇이 오산이었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이 과제였다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라는 3 개의 화살로 구성됐다.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의 대규모 구입 등 이차원의 금융완화 정책, 방재·감재(해)·국토 강인화의 공공사업 지출이 그 중심을 담당했다.

또 하나의 기본적 메시지는,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재건 없음'이다. 공적 채무 잔고 약 1100 조엔(GDP<국내 총생산> 대비 약 2 배)으로 선진국에서 돌출된 최악 수준에 있는 재정에 대해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입 증가를 중시하고, 증세 등의 부담증가는 극력 피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베 총리 재임 중 두 차례 소비증세가 실시됐는데 이는 아베 2 차 정권 이전인 노다 요시히코 옛 민주당 정권이 자민 공명과의 3 당 합의로 결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 자신은 시종 증세에는 소극적인 태도였고 경제성장을 실현하면 세수증가를 통해 재정건전화 과제는 해결한다는 논법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당초 그린 장래 상정과 실제 귀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 2 차 아베 정권이 출범 초기에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전제로 책정한 '중장기 경제 재정 시산'(2013 년 8 월 8 일 공표)을 살펴보면 된다. 여기서의 장래 추계치와 실적값을 비교해 보자. 우선은 경제성장이다. 아베노믹스는 당초 이차원의 금융완화 정책이 금융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기며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을 연출했다. 그에 힘입어 고가품 중심의 개인소비가 확대되면서 2013 년도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2.8% 증가한 로켓 스타트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다음 2014 년도에는, 소비 증세에 의한 성장률의 침체가 상정 이상으로 커져, 그 후도 침체했다. 특히 2018 년도부터는 연율 2%의 목표와 크게 괴리가 있었다.

다만 아베 정권 하에서는 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경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청년 인구의 감소를 배경으로 한 일손 부족이 키워드가 되어, 기업이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 고용에의 전환을 포함해 채용 활동을 적극화한 것은, 신형 코로나화 이전의 기억으로서 선명하다. 완전 실업률 추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 상회, 역사적인 저수준이 되고 있다. 경기는 그런대로 좋아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이 진행되어, 거기에 따라 물가상승률도 높아져 간다는 것이 경제의 이론이다. 하지만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임금은 제한적이고 물가상승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전략으로는 실패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에서는 과감한 금융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차원 완화 개시 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2 년 정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이에 따라 실질금리(명목장기금리-물가상승률)가 낮아지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돼 한층 경제가 확대된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논리였다.

실제의 물가상승률에서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당초 상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를 넘는 정도까지 올라, 거기에 대응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정상화(긴축)해 나감으로써, 명목 장기 금리도 상승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명목 장기금리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로% 안팎으로 묶이게 됐다.

경제성장 실패가 국채 이자지급비 낮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아베노믹스에게 '실패'가 되지만 사실 '국채비 억제'라는 이면의 효과로서는 메리트가 크다'는 점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명목 장기금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지급의 크고 작음으로 직결된다. 아베노믹스의 당초 상정으로는 경제확대와 함께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명목 장기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지급비를 포함한 국채비도 늘어난다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국채비의 보합이 계속되고 있다.

국채비 억제는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세수 증가 목표를 포함해 예상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화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 코로나 위기가 덮친 2020 년도와 그 이전의 2019 년도를 제외하면, 명목 GDP 대비 기초적 재정 수지(빚에 따른 세입·세출을 제외한 수지)의 추이는 당초 예상에서 멀지 않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비가 팽창한 2020 년도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2019 년도의 기초적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끌어올렸을 때, 증수 분의 용도의 일부를 빚 변제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등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 후반에는 경제 재정 운영에서도 느슨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귀결은 예상됐나?

이차원 금융 완화라는 장대한 사회 실험을 8 년 남짓이나 계속한 아베노믹스인데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까. 사실 필자는 주간 동양경제 2013 년 1 월 26 일호의 제 2 특집 아베노믹스의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다음과 같이 행방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면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경기는 너무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부양시켜 금리나 이자지급비의 증가는 지양하고 금리 수준을 웃도는 명목 GDP 와 세수의 증가를 달성하는 절묘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 경기가 과열돼 일본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금리 상승을 초래하면 아베노믹스는 좌절은커녕 이자지급비 상승에 따른 재정곤궁화를 초래한다.

웬만한 경기회복과 저금리 유지의 동시달성은 의외로 실현가능할지 모른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더라도 저성장에 그쳐 나름의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때, 낮은 상태의 이자지급비에 안주한 정치가 국채 누증에의 인식을 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이 벌써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일본이 안는 본질적인 리스크일 것이다('국채 증발'에서도 이자지급비는 억제, 줄타기 재정이 갈 곳은?).

눈앞에 닥친, 코로나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가 정치의 최대의 과제이지만, 정부의 고용조정 조성금 확충도 있어, 현재 고용의 악화는 일정 수준에 억제되어 있다. 포스트 아베 정권은 양 면에서 예상외로 수급이 긴축된 고용 구조를 어떻게 일본의 성장력 강화로 이어갈지,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동안 어떻게 재정 건전화의 가닥을 잡아 나갈지가 중요하다. 8 년 남짓에 걸친 아베노믹스에서 얻은 교훈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5. 하마노리코 '바보노믹스가 망쳐버린 일본 경제문제의 틀을 넘어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아레아 닷컴, 2020.8.31)



사진 1) 출처: 아레아 닷컴. 浜矩子하마노리코 / 1952 년생. 도시샤대학대학원 비즈니스연구과전문직학위과정교수. 저서로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는가』『약자의 행복이 지켜지는 경제로』『쇠뇌된 일본경제』등

8 월 28 일 사퇴의 뜻을 굳힌 아베 총리. 연임기간 7 년 반을 넘긴 장기집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것이란. AERA 2020 년 9 월 7 일호는, 권두 에세이 'eyes'에서도 친숙한, 경제학자로 도시샤 대학 대학원 교수인 하마노리코씨에게 물었다.

아베 신조 총리가 8 월 28 일 퇴진을 표명했다. 저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가 아닌 '바보노믹스'라고 부르며, 그것이 계속되는 상황을 '국난'이라고 경고하고, 아베 총리의 한시라도 빠른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심이 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다만 속적이라고는 해도 투병에 대해서는 건투를 빌겠다. 바보노믹스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속셈 정치에 근거하는 경제정책'. 아베 총리의 속셈은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 즉 21 세기판 대일제국을 만드는 것으로 그에게 경제정책은 부국강병의 부국 부분이다. 본래 경제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약자가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수익을 최우선한다. 그 첫 번째 예가 '근로 방식 개혁'이다. 감축이 좋은 말이지만, 그가 원래 내걸고 있던 것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방식'이다. 이는 즉, 노동법제에 의해 지켜지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정부 차원에서 늘리려는 대대령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사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노동비용이 낮아지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대우가 떨어진다. 아베 정권에서 일자리의 개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질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트럼프조차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지금 프리랜서로서 우버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높은 총자본이익률을 요구하며 엉덩이를 치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 이익률을 높이거나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부정에 손을 대는 것은 바보노믹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아베 총리 자신과 측근들이 손을 댄 것이 부지기수이다. 모리카케, 벚꽃, 검찰청법 개정..... 가까운 곳에서는, 국민이 코로나화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덴츠를 편애한다고 하는, 어안이 병병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있었다. 그에게는 '과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 회로가 빠져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7년 반 동안의 바보노믹스로 인해 일본 경제는 참담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로 취급해 정부가 시키는 대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 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지된 '재정파이낸스'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터무니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 앞에 국가예산이란 게 사라질 수도 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얼마든지 사 준다면, 한정된 예산을 무엇에 사용하는가 하는 논의나 절충은 필요 없다. 정부가 거둔 세금을 무엇에 쓰는지 국민이 통제할 수도 감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바보노믹스는 경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쌓이게 된 왜곡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큰 충격이 따를 것이다. 심각한 불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일본을 이 미친 길에서 바른 길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베 정권은 그 정도로 심한 왜곡을 일본 경제에 남긴 것이다.

6. 충격... ! 아베노믹스 아래에서 일본인의 '개인소비'가 괴멸되었다

(현대비즈니스, 2020.9.2)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28일 사임을 표명했다.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과를 거뒀는지 숫자로 검증해 봤다.

아베노믹스의 내용은 크게 변질되었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2012 년, 총재선출마를 정했을 때의 아베씨

아베노믹스는 당초 세 개의 화살이라는 말이 존재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시책으로 구성됐다. 정책의 기축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본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이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고이즈미와 다케나카 노선이다(아베 총리는 원래 고이즈미의 후계자 입장이며 그래서 구조개혁특구 등을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적 완화 방안이라는 과감한 금융정책을 펼쳐 개혁 중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투입을 혼합하는 것이었다.

즉 양적완화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디플레이션 탈피 수단이며 아베 씨는 구조개혁을 성장전략의 본성이라고 규정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느덧 아베 총리가 구조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됐고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불분명하지만 결국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정책의 일방적 타법이 됐다. 그동안 미래 투자 전략, 일본재부흥전략 등, 이름을 바꾸어 엄청난 수의 시책이 나왔지만, 이들은 각 성에서 제시된 사소한 계획의 집대성에 불과하며, 거시적인 시책으로서 양적 완화책뿐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너무나 많은, 게다가 거창한 이름뿐이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즉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결국 양적 완화책 단체의 평가와 이퀄이 된다. 양적완화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자금을 대량 공급해, 시장에 인플레이 기대를 양성시켜, 이것에 의해서 실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수법이다.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설비투자는 금리의 역함수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론상 금리가 낮을수록 설비투자는 활발하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저금리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명목금리를 인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일으키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려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로 연결한다는 것이 상정한 파급경로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훼손된 만큼 주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확대도 다소 기대됐다. 실제로 아베노믹스에 대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율은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비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디플레이션 탈출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엔화 약세에 따라 수입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물가를 올린 측면이 커

일본인의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지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 아베노믹스(양적완화책)는 주식시장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실물경제에는 생각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국내에는 플러스 성장이었지만...



사진 3) 출처: iStock

그렇다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기간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을까. 2012 년 10~12 월기부터 2019 년 10~12 월기까지 GDP(국내총생산) 평균 성장률은 물가를 고려한 실질 0.9%였다.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실질 2%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절반 이하가 현실이었다(덧붙여서 코로나 위기는 특수 요인이므로 2020 년 1 월 이후에 대해서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 사이 미국이나 독일 등 여러 나라는 1.52%의 성장을 실현했으므로, 일본은 상대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본인의 임금에는 변화가 없어도 수입품의 가격이 일방적으로 올라 생활이 어려워진다. 근년, 경제지표와 실제의 생활 실감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지적을 듣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다소의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지표와 생활실감은 반드시 일치한다. 최근 몇 년간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성장률이 낮은 데 따른 상대적인 일본인의 구매력 저하이다. 일본은 생활 물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쇄국이라도 하지 않는 한 여러 나라의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내에서 성장률이 플러스라 해도 상대적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실질 마이너스 성장과 동일하며, 그런 점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시점을 바꾸어, 과거의 경제정책과의 비교에서는 어떨까. 아베노믹스와 민주당 정권, 고이즈미-다케나카 구조개혁 시대,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여 대형 공공 사업을 여러 번 실시한 하시모토 정권·오부치 정권 시대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개인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4 가지를 다룬 것은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책이라는 금융정책, 고이즈미-다케나카 구조개혁은 공급망의 경제정책, 오부치 내각은 디맨드사이드의 경제정책과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경제정책이 고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교과서적인 시책을 비교함으로써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경제에서 어떤 거시정책이 유효했는지 힌트를 줄 것이다. 덧붙여서 민주당 정권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무책이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와의 비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앞서 아베노믹스 시대의 평균 성장률은 0.9%라고 했지만 민주당 정권 때는 1.6%, 고이즈미 시대에는 1.0%, 하시모토오부치 시대에는 0.9%였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을 제외하면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아베노믹스는 최하위이며(하시모토, 오부치 정권 시절이 조금 성장률이 높다), 게다가 이 숫자는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시대가 뛰어나게 좋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당시는 리먼 사태 이후 급회복이라는 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좋았을 뿐 결국 경제정책에 따른 성장률의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성장률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민주당 시절, 고이즈미 시대, 하시모토와 오부치 시대 모두 개인소비는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아베노믹스에서 개인소비는 거의 제로성장과 괴멸적인 상황이었다. 개인소비라 함은 GDP 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의 포장마차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아까 먹고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성장률 전체의 차이만 놓고 보면 어느 정권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 하에서 생활 실감이 나빠진 것은 소비 침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증하는 것이 중요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정서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잘 하지 못하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반대로 특정 인물이나 시책을 과도하게 찬미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나 무작정 찬미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인소비가 늘지 않았고 이것이 생활실감의 악화로 이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베노믹스가 국민을 가난하게 했다고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것이든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자부심을 되찾았다는 등 정서적으로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공과를 확실히 검증하고 이를 다음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아베노믹스에서 개인소비가 타격을 입은 것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일본경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현저하게 표면화된 것이 우연히 아베 정권 시절이었다는 것일 뿐이며, 이는 버블 붕괴 이후 줄곧 이어져 온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권에 해당되는 주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어느 정권(거시정책)에서도 성장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보다 근원적이며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의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통제 기간에 소독 제품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에 관한 통지 (2020.8.4)

국위사감독함[2020] 658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상시 방zitong제 기간 동안 소독 제품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소독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증하는 통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전염병 방zitong제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소독 제품 온라인에서 보고 기록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초기 소독제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zitong제 기간에 일부 소독제의 비상 출시에 관한 통지>(국위사감독함[2020] 99 호, 이하 <통지>로 약칭)를 인쇄발행하여 각 지역의 방역에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방지 사업은 이미 응급 상태에서 상시화로 바뀌었고, 일부 지역의 소독제 공급 긴장 문제가 완화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외부로는 유입을 방지, 내부로는 반등을 방지"의 총체적인 방역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방역 사업의 복잡성과 장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지>에 의거하여 현지 방역작업의 실제와 소독 제품 시장의 수급상황과 결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zitong제 기간 동안 소독제를 비상 출시하는 감독관리 조치를 제때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문서가 인쇄발급한 날부터 성급 위생 건강 행정 부서는 <통지> 중의 소독제 비상 출시 조치를 중단하고 <국가위생 계획출산위원회에서 소독제품 위생 안전 평가 규정에 관한 통지>(국위 감독발[2014]36 호)의 요구에 따라 소독 제품의 온라인 보고 기록 및 정보 공개 작업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 출시 소독제를 계속 생산판매할 의사가 있는 소독제품 책임사업자는 <국가위생 계획출산위원회에서 소독제품 위생 안전 평가 규정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비상 출시한 소독제의 위생안전 평가를 완료하고 보고 기로해야 한다. 소독제품 책임사업자는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위생안전 평가와 보고 기록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비상 출시한 소독제의 생산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수행하고, 기업이 질서 있게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각 지역은 반드시 "판관푸우"개혁 조치를 더욱 심화시켜, 현지 역무 방역 사업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소독 제품 생산 기업이 질서 있게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지도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치료법>, <소독관리방법>, <소독제품 생산업체 위생규범(2009 년판)> 등 법률 법규와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을 하고 소독 제품 생산행위를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독 제품 책임 기관은 마땅히 주체의 책임을 실천하여, 생산하고 판매한 소독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수출하는 소독 제품은 수입국(지역)의 품질 표준에 부합하며, 수출로부터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한 소독제품은 중국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기업들을 독촉하여 방역을 안전생산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기업의 방역을 잘하도록 해야 하고, 방역 지식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업무 복귀 생산 재개에 따른 전염병 전파 위험을 낮추고, 공동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며 공동으로 방지하고 치료하는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셋째, 진행중과 진행후의 감독을 확실히 강화하고, 법에 따라 법을 어기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기

각 지역은 방역 기간 동안 소독 제품 관리 작업 중의 돌출된 문제와 약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방향으로, 목표를 방향으로, 결과를 방향으로 견지하여 일상적인 감독검사, 이중 무작위 추출 조사, 전문 회복 등의 방식을 실시하여 소독제품에 대한 책임 부서와 소독제품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소독제품 시장에서 나타난 위조품 제조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한다. 적극적으로 소독 제품 온라인 보고 기록과 순찰 메커니즘을 추진하여, 성 간 연계를 강화하여 단속에 협력하여 범죄 혐의를 받은 것은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무국